

부내

2026년 4월호
춘천시 시정소식지



목차

2026년 4월호 APRIL 2026

🏠 bomnae.chuncheon.go.kr

📺 chuncheon.e

📺 chuncheonsi

📺 chuncheon_go



4 춘천은 지금 I



걷는 순간, 예술이 된다

호반사거리에 들어선 새로운 랜드마크
'소양아트서클' 현장을 찾았다.

10 춘천은 지금 II



보이지 않는 기술 움직이는 도시

일상 속에 스며든 기술, 춘천ICT벤처센터를
찾아가본다.

14 트렌드 춘천



작은 외교관들, 케냐 나이로비 가다

춘천 중학생 10명이 케냐에서 펼친 7일간
문화외교 이야기

22 시정뉴스

30년 방치된 폐건물,
시민공간으로 외

24 봄내 한 컷

청년 농부의 이끼정원 외

28 우리들 이야기

이부용 님 외 4건

30 누군가의 춘천

산유화, 당신

32 오래오래 가게

40년 요선동 골목 지켜온
'평창이모집'

34 도란도란

역사 속 잠들었던 독립 영웅을
깨운다 외

38 의회소식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18 봄솔랭 가이드



채소의 왕, 아스파라거스

4월, 제철 맞은 아스파라거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한다.

26 스포츠 도시 특집



‘테니스 도시’ 춘천의 행복 스매시

세계에서 활약하는 유망주를 키워낸 춘천 테니스의 저력을 들여다본다.

43 이달의 책
당신의 왼쪽은 나의 오른쪽 외

44 봄내아트
이 달의 문화예술 소식

48 봄내골 소식
춘천시 미담 사례 소개

53 봄내 명예시민기자 모집
2026년 명예시민기자 모집공고

54 알림마당
시정정보, 체험행사, 모집안내 등

62 독자와 함께
독자편지, 낭만수달 영달이 13편



〈표지〉 소양아트서클의 일몰

소양강변의 해 질 녘 풍경

사진 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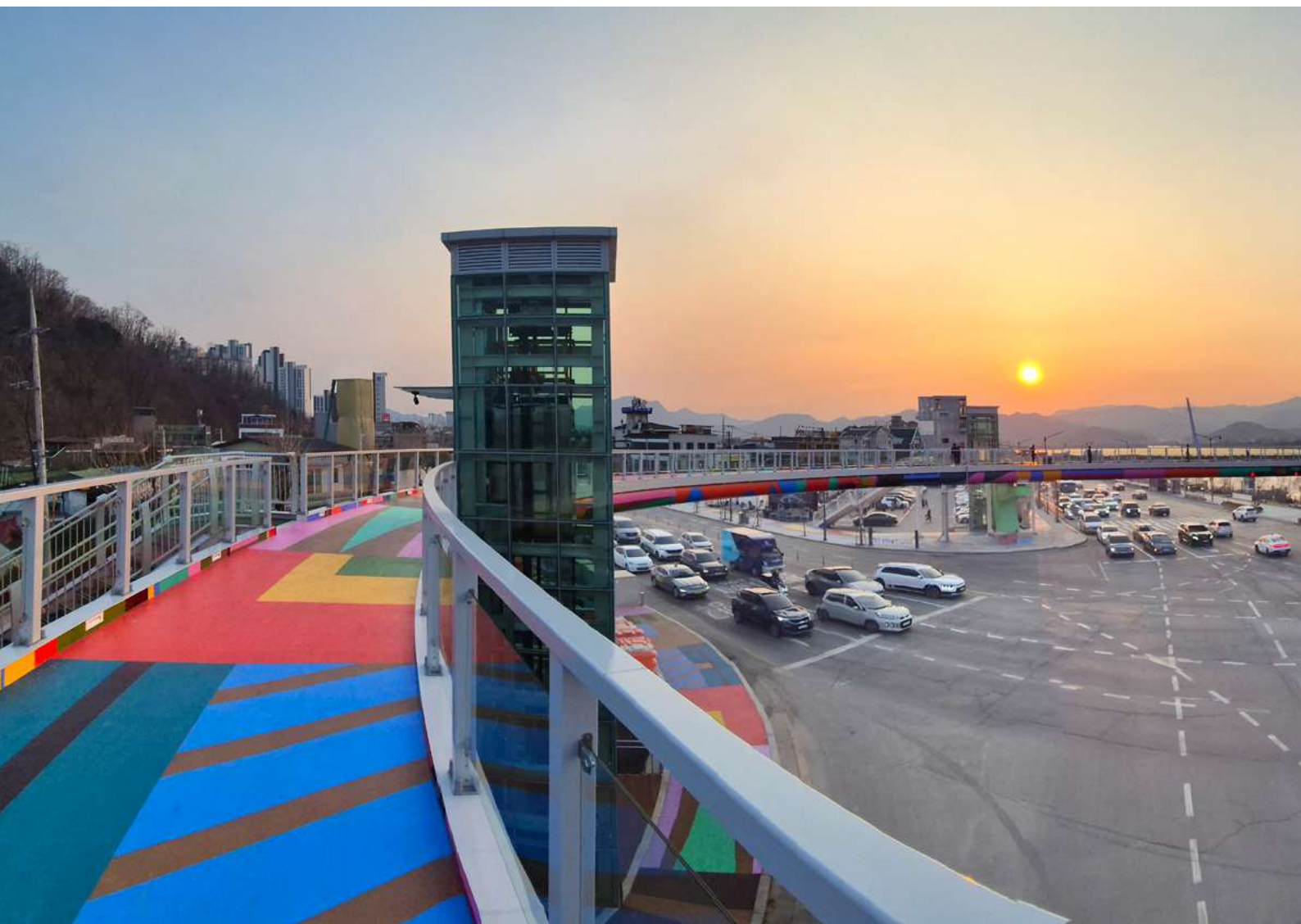
봄내 423호 2026년 4월호
비매품
창간일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2026년 4월 1일
발행인 춘천시 부시장
총괄 춘천시 홍보담당관
에디터 한수지 권소담
디자인 임윤선
편집위원 박종대 정현경 서승진
길정숙 김보건 장병선
인쇄 참조은 주식회사
문의 ☎250-3229



걷는 순간, 예술이 된다

해 질 녘 육교 위에 오르자, 황금빛 노을이 온몸을 감쌌다. 발 아래로 하늘을 닮은 물결이 넘실거렸다.
매일 지나치는 일몰의 순간이 소양강과 삼악산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앞에서 영원으로 남았다.
오후 6시, 호반사거리에 새로 자리 잡은 '소양아트서클'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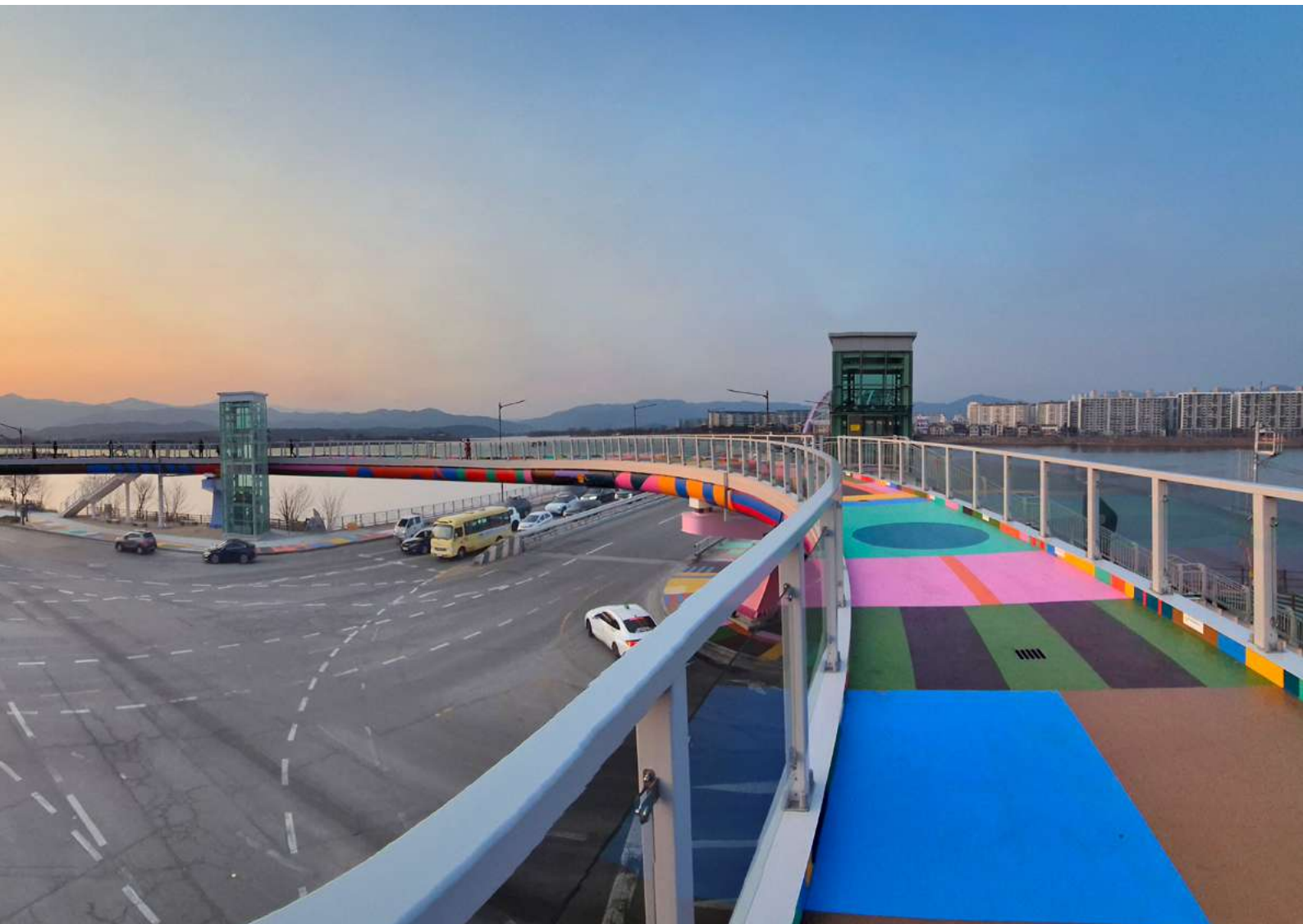
글 권소담





‘걷고 싶은 도시’를 향한 춘천의 도약

춘천시는 산과 강, 소양강치녀상과 스카이워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원형 형태의 육교 ‘소양아트서클’을 설치했다. 보행을 위한 단순 구조물이 아니라 예술적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다. 3월 5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했고, 11일 준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소양아트서클은 수변 관광지와 원도심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자 한 춘천시의 해답이다.



소양2교 근처 호반사거리는 춘천 시내 교통의 중심이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차점이자 소양강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관광지로 차량 통행이 활발하다. 하지만 그 사이 보행자의 불편은 쌓여갔다. 강변에 볼거리가 몰려있지만, 큰 도로로 인해 도보 순환이 단절됐다. 위축된 걷기 여행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으로 춘천에 방문하는 '뚜벅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188m 원형 데크 길이에 3m 보행 폭을 확보해 큰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졌다. 교통약자도 어려움 없이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4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걸어 다니는 공간에는 배수 체계를 갖추고 미끄럼 방지 처리를 했다. 눈이나 비가 와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야간 보행자를 배려한 경관 조명은 안전뿐 아니라 조형적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결과다.

안전을 위한 육교, 공공 예술이 되다

소양아트서클은 춘천의 원도심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춘천의 자연을 배경으로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공공 예술의 가치를 전한다.

그 자체로도 작품이지만, 배경이 되는 자연의 변화와 시민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미감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형 전시 공간이다.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소양강과 삼악산이 그대로 내려다보인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아래 디자인 패턴도 달라진다. 소양아트서클에 오르면 '걷는 순간 예술이 되는 마법'을 마주하게 된다. 구조, 색채, 도형, 사람의 움직임을 결합해 각기 다른 예술 경험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복합 예술 공간, 소양아트서클

미술관에 작품 설명이 있듯이, 소양아트서클 곳곳에는 디자인의 의미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발걸음을 기다린다. 춘천대교의 원형, 삼악산의 삼각형, 봄내극장의 사각형, 경춘선 철길을 닮은 4개의 줄이 화려한 색깔을 입고 시민을 만난다.

소양아트서클을 일대는 '예술의 도시' 춘천의 문화적 풍요를 상징하는 곳으로 재탄생한다.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버스킹과 공연을 통해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KT&G 상상마당, 춘천미술관 등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예술 투어도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 윤현



소양아트서클은 보행 폭 3m를 갖춰 안전한 통행을 유도한다. 강렬한 색감과 도형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춘천의 자연을 표현했다.

원형을 구성하는 패턴은 석윤이 모스그래픽 대표의 작품이다. 석 대표는 국내 출판 디자인 분야의 '전설'로, 스튜디오를 설립해 다양한 협업에 나서고 있다. 춘천의 자연을 강렬한 색감과 도형으로 표현했다. 산, 강, 하늘, 꽃을 패턴으로 만들고, 여러 조각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대형 교차로에 설치하는 공공 구조물인 만큼 시야에 들어오는 면적 안에서 다양한 색깔이 적절히 섞이도록



춘천시가 3월 5일 개최한 사전 개방행사에서 시민들이 소양강을 바라보고 있다.



소양아트서클의 5개의 계단을 통해 주요 관광지로 접근할 수 있다.

석윤이 대표는 “춘천에 와서 자연이 주는 선의 조화로운과 깨끗한 시내를 보고 감탄했다”며 “도시가 가진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에너지를 밝고 활기찬 디자인에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양강치녀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렘을 느꼈다”고 말했다.

춘천 호수 관광의 시작점

춘천시는 소양아트서클을 관광과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장소를 다시 볼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장쾌한 경관을 선사한다. ‘낙조 명소’인 이 일대는 야간 관광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근 번개시장 야시장을 홍보하고 달빛 요가 등 체험을 기획해 늦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낮과 밤 모두 찾을 수 있는 ‘올 데이 관광 벨트’의 핵심으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소양아트서클은 수변 및 원도심 관광의 중심지다. 5개 계단을 통해 번개시장, 스카이워크 주차장, 춘천역·원도심 방면, 봉의산 보행로, 호수와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수변 관광로 등으로 이어진다. 관광객 유입 창구인 춘천역이 가깝고, 스카이워크와 소양강치녀상도 지척에 있다. 사이로248과 하중도 생태공원 등 호수 관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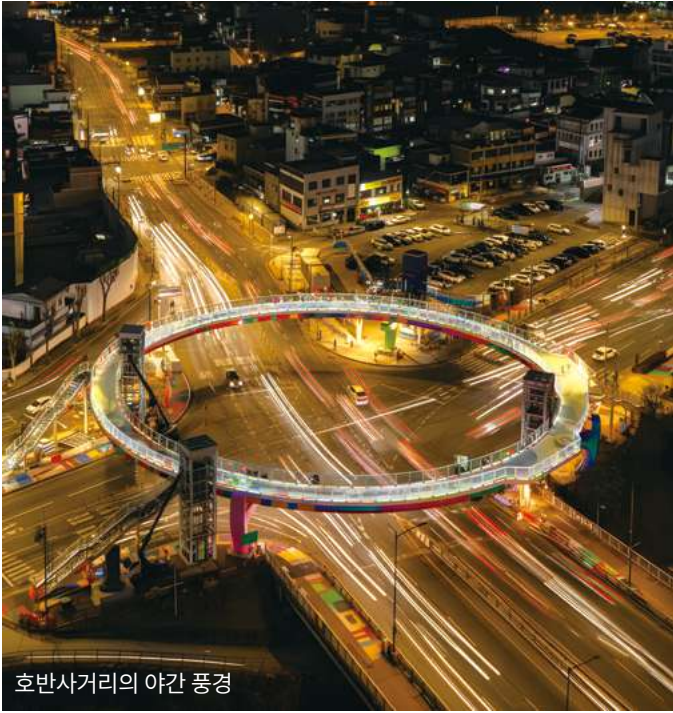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공지천과 화동2571, 번개시장을 잇는 거점으로 체류형 관광 상품의 중심이 된다. 봉의산 정상 조망대가 신규 조성되면 수변에 머물던 관광객을 시내 안쪽까지 찾게 할 수 있다.

노을빛 감성 사진 맛집

소양아트서클은 개장 초기부터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이름을 얻고 있다. 일몰 시간 전망대에 올라서면 산 뒤로 넘어가는 빨간 태양과 황금빛으로 물든 소양강을 조망할 수 있다.

해가 지는 서쪽으로 ‘The Sunset Glow’(노을빛) 글자 조형물과 노을을 담을 수 있는 와인 잔, 함께 만드는 하트 등이 마련돼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시민의 발길을 붙잡는다. 11일 저녁, 준공식에 맞춰 소양아트서클을 찾은 이들은 삼삼오오 노을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들고 추억을 남겼다.





호반사거리의 야간 풍경

인근 관광 자원이 많아 관광객의 연계 방문 효과도 크다. 체류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비액이 커지기 때문에 순환·체류형 관광 문화가 자리 잡을수록 인근 상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소양아트서클에 사용한 패턴은 이 일대를 상징하는 공공 디자인으로 재탄생한다. 인근 공영주차장과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해당 디자인을 적용해 통일감을 준다. 엽서와 컵 받침, 열쇠고리 등 춘천 관광 기념품에도 같은 패턴을 적용한다. 최근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지역성을 담은 '소품 숍'이 유행하고 있다. 석윤이 디자이너가 선보인 패턴 기반 문구류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생활 소품 브랜드로 정착했다. 이를 고려하면 소양아트서클 디자인을 활용한 굿즈는 춘천을 상징하는 새로운 로컬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관광 안내소에 디자인 기념품 판매 공간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춘천시는 소양아트서클 디자인을 활용한 휴대전화 그림톡과 유리잔, 선물용 가방 등 관광 기념품을 제작한다.

원도심 활성화의 씨앗을 심다

근화동과 소양동 일대는 원도심의 뿌리이자, 도시를 위해 오랫동안 인내해 온 지역이다. 앞으로는 춘천을 대표하는 '핫플'로 거듭날 전망이다. 소양아트서클이 원도심으로의 접근이 좋은 위치에 세워진 만큼, 관광객을 시내로 끌어들이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환경이 마련됐다.

춘천시는 정책적 역량을 이 곳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동네 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조합을 설립했다. 주민 주도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로컬 아카이빙에 나서는 등 스토리텔링 서사도 쌓아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골목상권이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브랜드 구축에도 나섰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사전 개방 행사에 참여한 황호연 강남동 38통 통장은 "봉의산과 연결해 소양아트서클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반갑다"며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역세권 개발 등과 맞물려 이 일대는 더 활기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4번에 걸쳐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즐길 거리를 더한다. 늦은 시간 체험 요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낙조, 야간 명소의 존재는 상권의 활력소가 됐다. 번개시장과 연계를 위해 야시장 메뉴 개발에도 나선다.

춘천시 관계자는 "소양아트서클은 공공 예술 작품이자, 도심 상징물로서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상권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를 정비해 거점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호반사거리 인근 야경은 원도심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거듭날 전망이다.

'출판업계 전설'이 공공 디자인에 도전한 이유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움 느끼길"



© 열린책들

소양아트서클을 디자인한 석윤이 모스그래픽 대표는 국내 출판업계를 선도하는 디자이너였다.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해 2020년 창업했다. 다양한 패턴에 채도 높은 원색, 대비되는 배치는 석 대표가 꾸준히 사용해 온 모티프다. 소양아트서클에도 적용된 바로 그 디자인이다.



북 디자이너, 영역을 확장하다

열린책들에 근무하던 시절, 그는 출판업계의 디자인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 현대문학 '블루 컬렉션'은 지금의 '디자이너 석윤이'를 만든 작업물이다. 한 가지 색에 추상적인 그래픽으로 주제를 관통했다.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여러 아류작을 만들어낼 정도로 반향이 컸다.

감각은 독립 후 모스그래픽에서 출시한 '포스트박스 카드'로 이어졌다. 패턴과 색이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구성 요소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작업 방식은 소양아트서클에도 차용됐다.

모스그래픽은 브랜드 모스를 통해 문구류를 선보이고 있다. 작은 조각에서도 시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입점점 까다로운 MoMA(뉴욕현대미술관) 디자인 스토어에 들어갈 정도로 탄탄한 글로벌 팬층을 확보했다.



© 모스그래픽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공공디자인의 힘

석윤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을 고심해 왔다. 소양아트서클 프로젝트 역시 공공 디자인에 대한 사명감이 바탕이 됐다. 자신의 예술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선보인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석 대표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소양아트서클은 대중에게 시각적 미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했다. 소양아트서클에는 땅에서, 공중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양한 모양과 색채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체험하길 바라는 디자이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공공 디자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윤이 대표는 "공공 구조물에서 풀기 어려운 패턴을 다양한 각도에 담는 작업은 세계 여러 사례를 참고해도 이례적"이라며 "참신한 도전 자체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⑧

디자이너 석윤이

성신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북 디자이너로 일했다. 지금은 스튜디오 '모스그래픽'과 브랜드 '모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 교보문고, 현대백화점, 우리카드, 네이버 등 굵직한 기업들과 협업했다. 월간 디자인 영디자이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후학 양성도 이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기술

최지수 씨 이야기 퇴계동, 38세 회사원, 7살 딸 엄마



아침은 휴대폰 확인부터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한다. 어젯밤 딸이 살짝 열이 났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앱에는 밤새 아이의 수면 상태가 올라와 있다. 담임 선생님의 메시지도 함께 보인다.

“오늘 컨디션 보고 등원 결정하세요.”

아이 곁에 놓인 작은 기기가 밤새 수면과 호흡을 기록해 준 것이다.



출근길, 도로가 미끄럽다

어젯밤 눈이 내렸다. 지수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걸음을 서두른다. 도로가 살짝 얼어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도로 위 상황은 이미 분석되고 있었다.

기상 데이터와 도로 센서를 실시간 분석해 블랙아이스와 안개, 적설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새벽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도로 관리자는 그 정보를 보고 어느 구간을 먼저 치울지 결정한다. 지수 씨는 그냥 생각한다.

“오늘 길 생각보다 괜찮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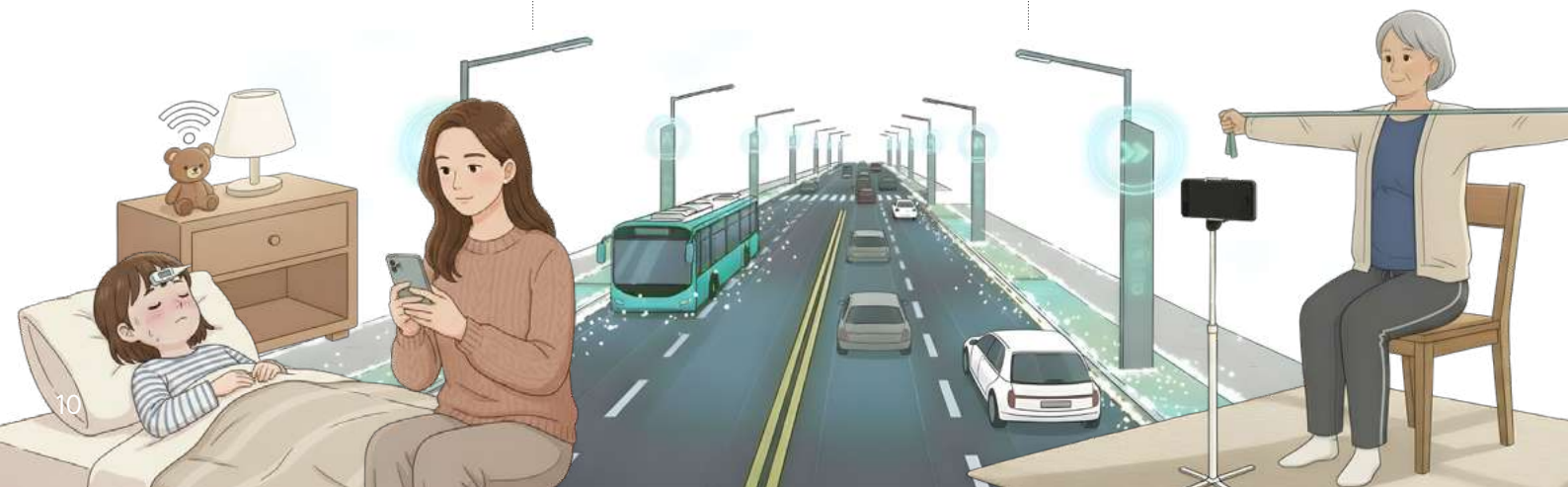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나 요즘 자꾸 어지러워.”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엄마는 괜찮다며 웃는다. 지수 씨는 어지럼을 간단히 체크하고,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재활 운동 앱을 알려드린다. 잠시 뒤 메시지가 온다.

“이거 신기하네. 동작 따라해보니까 좀 덜 어지러운 기분이야.”

엄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화면을 보며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본다.





움직이는 도시

춘천에 조금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다. 후석로 462번길 7. 겉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 하루, 춘천에 사는 한 시민의 일상을 따라가 보자.

글 한수지



오늘 수업은 게임 같았다.

오후가 되자 어린이집 앱에 알림이 뜬다. 오늘 활동 사진이 올라왔다. 아이들이 VR기기를 쓰고 가상 공간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수업을 하고 있다. 지수 씨는 웃으며 생각한다.

“요즘 애들은 공부도 게임처럼 하네.”

하지만 화면 뒤에서는 아이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퇴근길, 그냥 지나쳤던 기술

복도의 온도는 딱 적당하다. 엘리베이터 홀 조명도 자연스럽게 꺼진다. 지수 씨는 그냥 지나친다.

사실 이런 공공시설의 공조와 조명은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다. 춘천 시내 정수장과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다. 하천변 진입 차단기와 터널 조명까지, 누군가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작동한다.

지수 씨에게는 그저 ‘겨울에도 따뜻한 건물’일 뿐이지만,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제어 시스템이 하루 종일 도시 곳곳을 움직이고 있다.



하루가 끝난다

말을 재우고 소파에 기대 앉는다. 팀 단톡에 알림이 온다. 오전 회의 내용이 세 줄로 요약돼 있다. AI가 자동으로 정리해 준 것이다. 지수 씨는 확인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놓고 노트북을 닫는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간다. 생각해 보면 휴대폰을 켜 순간부터 하루가 끝날 때까지 지수 씨의 하루는 기술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수 씨는 모른다. 오늘 하루 그가 무심코 사용한 기술들 중 몇 개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춘천ICT벤처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술 어디서 왔을까.



어린이집 앱으로
아이 수면 상태를 확인했던 그 순간

(주)가르침에듀

-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 알림 앱을 만드는 에듀테크 기업
- AI 돌봄기기가 아이의 행동과 수면 상태를 감지해 부모와 교사에게 알려준다.



눈 내린 다음 날,
도로가 생각보다 괜찮았던 이유

(주)월드텍

- 도로 위험 기상정보를 예측하는 기술 기업
- 블랙아이스·안개·적설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로 관리자에게 먼저 알려준다.



어지럼이 느껴질 때, 집에서 먼저

(주)뉴로이어즈

- AI·VR 기반 어지럼·이명 진단·재활 기술
-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측정하고 집에서 재활까지 따라할 수 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은 기술이 춘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게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뇌 훈련이었다

(주)텐서브레인

- VR·게임 기반 인지훈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아이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과학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겨울에도 복도가 따뜻했던 이유

(주)로아솔루션

- 공공시설 자동제어 및 AI 기반 통합운영 시스템 기업
- 정수장·하수처리장·건물 냉난방까지, 누군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판단하고 움직인다.



오전 회의가 퇴근 후 세 줄로 정리됐다

(주)큐케어

- 생성형 AI 기반 기록·요약 솔루션 기업
-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핵심만 정리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지수 씨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뿐이다.
그 하루 속 기술 몇 가지는 춘천 ICT벤처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술이 태어나는 곳, 춘천 ICT벤처센터

후평일반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은 춘천 ICT벤처센터는 겉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용 건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모여 각자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3월 11일 이곳을 찾았을 때도 층마다 사무공간과 회의실, 공동 이용 공간이 차별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2024년 준공된 이 건물은 춘천시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공간으로, 현재 4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데이터 기술 등 분야도 다양하다.

김성종 춘천ICT벤처센터 운영팀장은 “이곳은 단순히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하고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이 공간을 ICT 분야 창업과 성장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사무공간 뿐 아니라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김 팀장은 “앞으로는 AI·ICT 기반 벤처기업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100개 이상 늘려 청년 인재가 모이고,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전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들이 쌓여 도시의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시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춘천 ICT벤처센터는 바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다.⑥

*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2025년 성과공유회

춘천ICT벤처센터는 지난해 12월 입주기업 43곳과 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같이의 가치: 2025 네트워킹데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입주기업의 고용·매출 성장과 기술개발, 특허 성과 등이 공유됐다. 센터는 앞으로도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ICT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춘천ICT벤처센터 위치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7 시설 규모 연면적 12,856㎡(지하 1층 ~ 지상 5층)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에서 마사이 전통 공동체와 함께

춘천의 작은 외교관들, 케냐 나이로비에 가다

“이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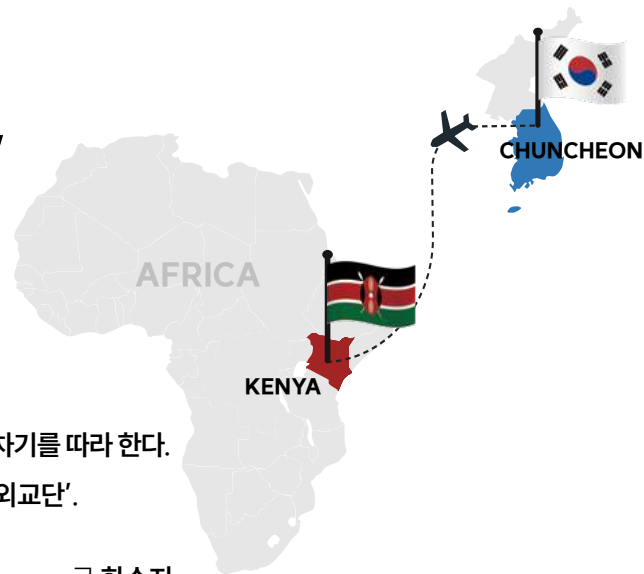
케냐 나이로비의 한 국제학교 체육관. 춘천 중학생들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진다.

도복을 입은 학생들이 절도 있는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자 현지 학생들이 웃으며 발차기를 따라 한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몸짓 하나면 충분했다. 춘천을 세계에 알리는 ‘청소년 공공외교단’.

낯선 도시에서 친구가 되어 돌아온 작은 외교관들의 7일을 따라가 본다.

글 한수지



춘천시 청소년 공공외교단 춘천 지역 중학생들이 해외 청소년과 교류하며 국제 감각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외교 교육과 대사관 방문, 문화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춘천과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공공외교단은 춘천시가 활동비를 전액 지원한다.

춘천에서 아프리카까지 1만 킬로미터를 건넌 아이들

춘천에서 케냐까지의 거리는 약 1만km. 학생들에게 케냐는 지도에서만 보던 낯선 나라였다. 춘천시는 2023년부터 중학생들이 해외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공외교단'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과 협력해 6개월간의 공공 외교 교육과 사전 활동을 거친 뒤, 재단이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기 에티오피아, 2기 이집트에 이어 3기 단원들은 케냐를 찾았다.

교류의 핵심은 '교감'이었다. 학생들은 케냐 국제학교와 세종학당을 방문해 태권도 공연을 펼치고, 한국 전통 자개 공예 체험을 함께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땀 흘리고 공예 작품을 만드는 사이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는 너나 할 것 없이 SNS 계정을 교환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아시아아프리카청소년포럼(AAYF) 개막식에서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나이로비 세종학당 교류 프로그램



태권도 시범공연을 위해 두 달 동안 준비했다.



강형식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 관저에서 진행된 '대사와의 대화'

6개월의 땀방울, 작은 외교관 되기까지

케냐 방문은 단번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지난해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다. 공공외교 특강과 의전 교육은 물론, 이탈리아 대사관 방문과 주한케냐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교 활동의 기본을 배웠다.

가장 큰 도전은 태권도였다. 단원 10명 중 절반은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매주 주말마다 모여 발차기 높이를 맞추고 품새를 익히는 연습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호흡이 맞기 시작했고, 하나의 공연을 완성해 갔다. 춘천을 소개하는 발표도 학생들이 직접 준비했다. 학생들은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행사, 음식 등을 조사해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엄혜정 춘천시 국제협력팀장은 "발표 자료부터 공연까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면서 춘천에 대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성장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나이로비에서 보낸 7일

지난해 10월 케냐에 도착한 학생들은 나이로비 국립공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도심 고층 빌딩 너머로 사자와 코뿔소가 뛰노는 낮선 풍경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마사이 공동체를 만나 전통춤을 함께 추며 '다름'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케냐에서의 핵심 일정은 학교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케냐 국제 학교에서 열린 교류행사에서 학생들은 준비한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현지 학생들에게 태권도 기본 동작을 직접 가르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툰 발차기가 이어질 때마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태권도 동작을 배우는 사이 언어의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학생들은 자개 공예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작은 자개 조각을 붙이며 서로의 학교생활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UNON(유엔 나이로비 사무소)과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저도 방문했다. 이들은 국제기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들었다. 강형식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외교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지도에서만 보던 세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공공외교단 INTERVIEW

"편견을 내려놓으니 친구가 보였어요"



김수빈 후평중

"출발 전에는 '왜 하필 아프리카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사관 방문과 태권도 연습,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활동 자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편견을 내려놓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김규빈 유봉여중

"케냐 국제학교는 마치 '작은 지구' 같았어요. 현지에서 배운 '하라까 하라까 하이나 바라까(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케냐 사람들의 여유와 미소를 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N 나이로비 사무소 회의장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배웠다.

손흥민에서 닭갈비까지 춘천을 소개하다

케냐국제학교, 우리나라 KAIST 모델 기반으로 설립된 케냐 과학기술원(Kenya-AIST), 그리고 나이로비 세종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춘천 소개 발표도 진행했다. 발표는 춘천 출신 축구선수 손흥민과 K-POP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이야기로 시작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소양강과 의암호, 레고랜드와 마임축제, 그리고 닭갈비와 막국수까지 소개하며 춘천이 자연과 문화, 음식이 어우러진 도시라는 점을 소개했다.

7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작은 외교관들'.

최인숙 춘천시 국제협력관은 "아이들이 케냐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다시 우리 지역에 전하는 것까지가 공공외교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나라와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년 제4기 춘천시 청소년 공공외교단 모집

신청대상 : 춘천 지역 중학교 2학년 누구나

신청인원 : 10명 내외

신청기간 : 4. 27.(월) ~ 4. 30.(목)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 제출 후 서류·면접 심사

문의 : 춘천시 국제협력관 국제협력팀 ☎ 250-4379

봄내퀴즈

Q. 공공외교단 친구들이 케냐 현지에서 배운 스와힐리어 "하라까 하라까 하이나 바라까"의 뜻은?

- 1) 어서 빨리, 빨리빨리!
- 2)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 3) 무쏘의 뽀빠처럼 혼자서 가라
- 4) 안 되면 되게 하라



봄내퀴즈 응모하기

채소의 왕 아스파라거스

아직도 안 먹어봤나요? 춘천 아스파라거스

만물이 움트는 봄이 왔다.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미는 채소를 맛볼 시간이다. 주인공은 4월에 제철인 아스파라거스. 계절의 순리대로 성실하게 매일 5cm씩 쑥쑥 자라는 중이다.

아스파라거스는 '채소의 왕'으로 불린다. 유럽에선 2000년 전부터 약으로 썼다. 아미노산 중 하나인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높아 특유의 시원한 맛이 난다. 숙취 해소에 좋으며 이뇨 작용으로 요산 배출을 촉진한다. 대륙의 동쪽 끝으로 건너온 채소는 이제 춘천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

수확한 지 오래되면 아삭한 맛이 사라지고 쓴맛이 난다. 유통 과정이 짧은 국산, 그중에서도 가까운 지역에서 수확한 식재료를 맛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춘천에선 2012년 서면 일대 농가에서 재배를 시작했다. 15년 가까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다년생 작물이어서 수익성이 좋다.

아스파라거스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겨울마다 강추위가 찾아오는

춘천에서 키우기에 적합하다. 지금은 재배하는 농가만 32곳, 재배면적은 16.6ha에 달한다. 특히 서면은 토질 특성상 수분 함량이 많은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기 좋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수명이 짧아 지는데,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 과습 피해를 방지한다. 큰 일교차 속에서 아스파라거스는 더 굵어지고 단맛은 강해진다.

아스파라거스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콩나물과 비슷한 향이 나 채소를 활용하는 그 어떤 요리에든 활용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는 볶아서 스테이크와 곁들여 먹는다. 카스텔라, 에그타르트를 만들 때 베이킹 재료로도 사용한다.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카레나 짜장밥을 만들 때도 쓴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 덕에 제육볶음과도 잘 어울린다.



일본·홍콩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춘천산 아스파라거스는 일본과 홍콩 가정의 식탁에도 오른다. 춘천아스파라거스연구회가 수출을 주도한다. 동남아시아에선 아열대 기후 특성상 가느다란 아스파라거스만 난다. 덕분에 현지에선 굵고 당도 높은 춘천산이 인기가.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아삭하고 포만감을 준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시 아스파라거스 수출 규모는 6192kg, 4만1000달러(한화 약 6000만원)로 양구·화천에 이어 전국 3위에 올랐다. 국내 아스파라거스 수출의 24%를 차지한다. 시범으로 나가던 물량이 2024년부터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외 시장에서 가치가 오르며 농가들이 함박웃음을 짓게 됐다. 수출 단가는 2023년 kg당 7000원에서 지난해 9400원 수준으로 경증 뛰었다.

홍종용(71) 응달농장 대표는 “수출 시장을 점검하러 말레이시아 현지 마트로 답사를 갔더니, 4~5호 크기의 얇은 태국산 제품만 있더라”며 “크기가 크고 굵은 춘천산 농산물이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농가에선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기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린 아스파라거스와 다른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재배를 시작했다. 햇빛을 차단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길러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다. 봄철 전국적

으로 그린 아스파라거스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에,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로 차별화하려는 시도다.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는 화이트가 그린에 비해 3~4배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귀한 취급을 받는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베테랑 농부의 도전

홍중용 응달농장 대표는 올해부터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재배에 나섰다. 40년 넘게 서면 신매리 밭을 일궈온 베테랑 농사꾼의 새로운 도전이다. 홍 대표는 2010년대 초반, 생소했던 아스파라거스를 춘천에서 처음 심은 선도 농가 중 하나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재배한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현재는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추후 대량 재배에 성공하면 몇 년 뒤 춘천의 밥상에서도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를 자주 만나게 될 수 있다.

응달농장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아스파라거스를 출하하는 농장이다. 2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다른 주산지에 비해 2개월가량 빠르다. 다른 지역에서 본격 출하가 시작되는 3월 말 전까지, 응달농장의 아스파라거스는 ‘귀한 몸’ 대접을 받는다.

조기 출하가 가능한 것은 홍 대표의 기술력과 성실함 덕분이다. 그에겐 겨울 농한기가 없다. 이듬해 2월 출하를 위해 수확이 끝난 10월부터 다음을 준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덩굴을 걷어내고 내부를

정돈한 다음, 1월부터 ‘터널’을 만든다. 터널 재배는 작물 바로 위에 비닐과 에어캡으로 3중 보호막을 만들어 한겨울에도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홍중용(71) 응달농장 대표

홍 대표는 1300평(약 4300㎡) 규모의 하우스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한다. 수확 시기에도 다른 손을 빌리지 않고 아내 이정희(66) 씨와 단둘이 작업한다. 성장이 가장 활발한 때엔 하루 60~100kg씩 수확량이 쏟아진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촌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서면을 통합하는 작목반을 만들었다. 지금도 신매2리 이장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실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홍 대표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완전히 빛을 차단한 채로 재배해야 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춘천산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싱한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고르세요!

홍중용 대표의 아스파라거스 구매Tip



하! 밀동을 꼭 확인. 절단면이 매끈하고 색깔이 균일해야 갓 수확한 싱싱한 상품.

둘! 구매한 뒤, 수분 손실 방지를 위해 랩에 싼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 일주일 이상 신선한 상태로 아스파라거스를 즐길 수 있음.



레시피

아스파라거스 감자스프

레시피 by 춘천시농업기술센터 향토 음식 아카데미



- 1 아스파라거스 350g을 손질해 적당히 썰고 감자와 양파, 대파는 채 썬다.
- 2 기름 두른 팬에 양파와 대파를 볶다가 감자와 아스파라거스를 넣어 함께 볶는다.
- 3 물을 붓고 끓여 감자가 완전히 익으면 불을 끄고 믹서에 곱게 간다.
- 4 냄비에 붓고 파르메산 치즈와 우유를 넣어 농도를 잡는다. 소금과 후추, 치킨스톡으로 간을 한다.
- 5 아스파라거스 250g은 밑동의 질긴 부분을 정리하고 기름 두른 팬에 볶아 소금과 후추를 뿌린다.
- 6 달걀로 수란을 만들어 곁들이고 빵과 함께 낸다.

아스파라거스 베이컨말이

레시피 by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1 아스파라거스 밑부분 껍질을 벗겨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쥔다.
- 2 베이컨을 한 장씩 바닥에 깔고 녹말가루를 뿌린 뒤 아스파라거스를 돌돌 만든다.
- 3 팬에 식용유를 둘러 채 썬 마늘을 볶다가, 베이컨 말이를 약불에 노릇하게 굽는다.
- 4 잣가루, 겨자, 식초, 설탕, 레몬즙, 소금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곁들인다.

이 달의 주요 뉴스

도청광장~팔호광장 1.5km, '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

실례마을, 문화체육관광부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

봄 해빙기 맞아 위험 옹벽 11곳 점검

공무원이 현장 위험 요소 바로 처리... 'SOS 춘천' 가동

3.1절 태극기 게양률 41.7%...작년보다 30%p 상승

"물가부터 골목상권까지" 민생 대책 가동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이어지자 춘천시가 민생경제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물가상황실을 가동해 116개 주요 민생품목 가격을 점검하고 농부의 장터 확대 등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 상수도·주차장 등 공공요금 인상도 보류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공공배달 앱 '땡겨요' 활성화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융자 확대와 취약계층 돌봄 강화 등 민생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경제정책과 ☎250-4436

33년 방치된 폐건물, 시민 공간으로



근화동 도심에 33년간 방치돼 강변 경관을 가로막던 '용궁예식장' 건축물이 다시 살아난다. 기존 구조를 활용해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며, 소양강 일대와 어우러진 시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993년 공사 중단 이후 안전 문제와 도시 경관 훼손 우려가 이어졌던 곳으로, 춘천시는 건축주와 협의해 용도 변경을 완료, 공사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민원담당관 ☎250-3445

외국인 유학생, 춘천 인재로 키우다



춘천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춘천형 인재 정착 모델'을 추진한다.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1,619명에서 2025년 3,1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취업연계 인턴십 확대, 돌봄 인력 양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정착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협력관 ☎250-3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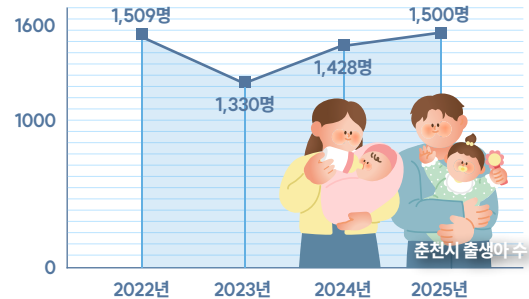
“청년 목소리 시정으로” 청년네트워크 출범



춘천시가 청년이 정책 제안과 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청년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1기 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청년 문화·교육, 일자리·창업, 생활·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발굴한 정책은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등과 연계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발대식과 함께 열린 포럼에서는 로컬 경쟁력, AI 시대 청년 참여 방식, 지역 기반 창업 등 청년 정착 전략도 논의했다.

자치행정과 ☎250-3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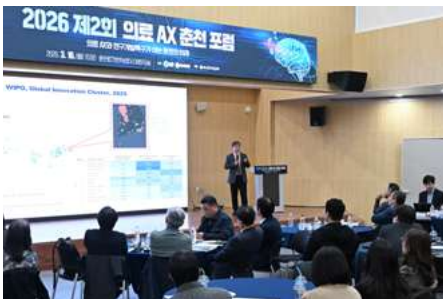
출산율 2년 연속 반등 이끈 돌봄 정책



춘천시 합계출산율이 2025년 0.87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1,500명을 회복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50~100% 지원과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출생 축하금 등 체감형 돌봄 정책이 양육 부담을 덜어준 결과로 보고 있다. 야간연장돌봄 4개소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 인프라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야동정책과 ☎250-4424

춘천시 ‘의료 AX 춘천포럼’ 개최



춘천시는 3월 16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2026 제2회 의료 AX 춘천포럼’을 개최하고 인공지능 전환 시대 의료 산업과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의료 AI 기술 동향과 디지털헬스, 수술로봇 등 산업 전망을 공유했다. 강원대·한림대 연구진도 AI 기반 암치유 실증센터·뇌질환 관리 플랫폼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발판으로 의료 AI 산업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250-3752



봄내 한 컷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채로운 춘천의 모습



5월호 봄내한컷에서는
‘소양아트서클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여러 시간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소양아트서클 사진을 공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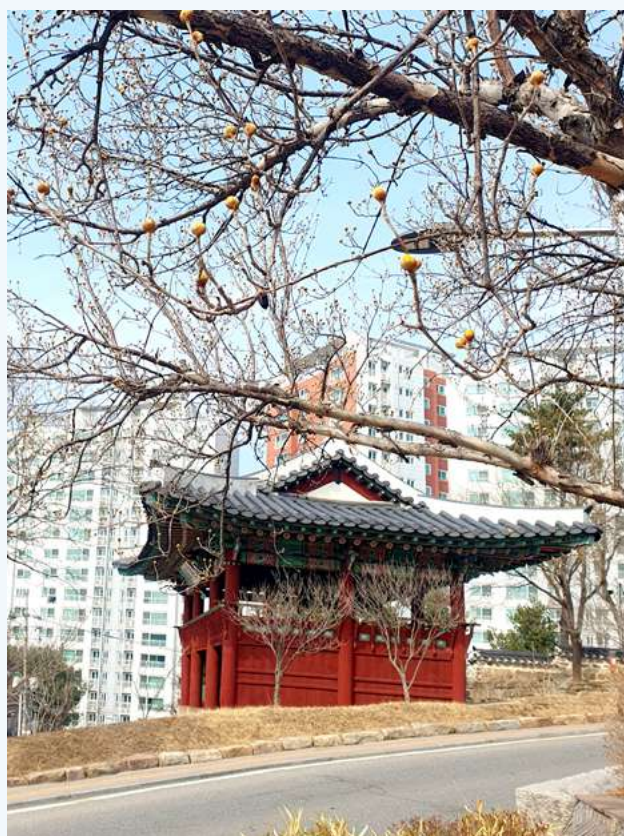
1. 김민재 청년 농부의 이끼정원
2. 이해선 마적산 사랑나무 앞에서
3. 전영민 봉의산 산수유
4. 황초롱 피어나려는 산수유
5. 이병찬 봄을 기다리는 의암호

<봄내 한 컷> 참여방법은 후면 P.63를 확인해주세요!



나만의 순간을 찰칵

봄내 한 컷



스포츠가 도시를 움직인다

'테니스 도시' 춘천의 행복 스매시



글 시민기자 전영호



춘천테니스협회 임원들이 송암스포츠타운 실내 코트에서 단체 연습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매년 3월이면 테니스 시즌이 시작된다. 송암·호반 코트 예약이 촉촉해지고 대회 일정표가 한 장씩 채워진다. 호반배 강원도 동호인 대회가 물꼬를 트면, 곧 춘천오픈 등 전국 단위 대회로 열기가 이어진다. 봄을 맞은 춘천의 테니스 코트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달아오른다. 저녁 시간 코트에 조명이 켜지면 클럽별 라켓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테니스는 도심 곳곳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을 드는 순간, 나이와 직업을 떠나 다양한 사람들이 실력을 겨루며 스포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춘천이 국내 최정상급 이서야(18·봉의고 3학년) 선수를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이 만들어온 테니스 문화와 인프라가 한몫했다.

● 춘천 테니스 이끄는 컨트롤타워 '춘천시테니스협회'

테니스 열기 한가운데에는 춘천시테니스협회가 있다. 대회 운영과 생활체육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협회는 클럽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임원진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대회를 직접 주최·주관하며 각 클럽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중심을 잡는다.

올해 협회가 개최하는 대회만 26개다. 일부 동호인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참여하는 선수층이 다양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3월 호반배가 시즌의 포문을 열고, 4월 협회장기, 5월 협회장배 전국대회, 9월 춘천시장배 같은 굵직한 대회들이 연이어 펼쳐진다.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전국 대학 테니스 동아리 대회 소양강배는 전국에서 400여 팀,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팀 단위로 승부를 겨루는 디비전 리그는 더 많은 동호인을 코트로 이끌었다. 3~12월 열리는 '춘천오픈 월 대회'를 통해선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서 대회를 경험할 수 있다. 덕분에 춘천의 코트는 주말마다 '경기장'이 된다.

테니스인들의 교류는 코트 밖에서도 이어진다. 대회 참가자들 덕에 굵직한 경기가 열리는 주말이면 숙박과 식사 수요로 골목 상권이 북적인다. 테니스가 도시의 문화와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셈이다. 양금석 춘천시테니스협회 회장은 "협회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이 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힘이 된다"며 "여러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쉽게 배우는 경기 규칙

테니스에서는 공이 한 번만 바닥에 닿을 수 있다. 두 번 이상 땅에 떨어지면 상대에게 점수를 내준다. 점수는 0에서 시작해 15, 30, 40 순으로 올라간다. 40에서 한 점을 더 내면 해당 게임을 가져간다. 6게임을 따내면 1세트를 이긴다.



춘천시테니스협회 지철호 경기이사, 박보경 총무이사 부부

테니스 문화를 만들어온 춘천시민들

테니스의 뿌리는 '클럽'이다. 춘천시테니스협회 가입 클럽은 72개, 회원은 2,500여 명이다. 개인 동호인까지 더하면 춘천의 테니스 인구는 3,000명에 달한다. 지역 곳곳에서 동네, 직장, 세대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고 코트에서 만난다. 라켓을 잡는 순간, 이들은 테니스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섞이며 하나가 된다. 오늘은 함께 뛰고 다음엔 서로 응원하며, '아는 얼굴'이 도시 안에서 조금씩 늘어난다. 도시 곳곳에 네트워크가 스며들어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꽃피운다.

가정과 일상에서도 테니스의 긍정 효과가 힘을 발한다. 박보경 춘천시테니스협회 총무이사는 남편인 지철호 경기이사와 복식 파트너로 대회에 참가한다. 박 이사는 "평일 연습과 주말 대회가 이어지다 보면, 부부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난다"며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꿈나무들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무대도 가까이 있다. 이덕희배는 2001년부터 매년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 주니어 대회다. 2024년 대회에선 국내외 선수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서아 선수가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테니스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더 많은 시민이 코트를 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해졌다. 코트 수요가 커지며 예약과 대관 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다. 이정운 춘천시테니스협회 전무이사는 많은 시민이 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공공 기관 내 테니스장을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14년 만에 부활한 '명가' 봉의고 테니스부

여러 주체가 연계해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내놓은 사례도 있다. 2024년 4월, 봉의고 테니스부는 2010년 해체 이후 14년 만에 부활했다. 교내에 3면의 코트도 마련했다. 봉의고와 춘천스포츠클럽(이하 '춘천SC')은 상호 연계를 통해 학교가 공간과 학사 기반을 마련하고, 춘천SC가 훈련과 대회 출전 등 선수 육성을 맡는 방식으로 테니스부를 창단했다. 덕분에 유망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



춘천을 대표하는 유망주 이서아 선수는 매일 저녁 봉의고 테니스장에서 훈련한다. 코트에서 만난 그는 "다리와 몸통, 팔이 순서대로 연결될 때 서브가 더 강해진다"며 서브 연습을 이어갔다.

춘천SC 소속의 이서아 선수는 올해 3월 기준 국내 여자 단식 순위 17위다. 랭킹 100위 안에서 가장 어린 선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한 테니스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됐다. 주니어 시절부터 유망주로 꼽혔던 그는 지난해 성공적인 성인 무대 데뷔를 치렀다. 경북 김천에서 열린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식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성인부 전국대회 결승 코트를 밟은 것 자체가 특별했다. 원주로 고교 진학을 고민했지만, 봉의고 테니스부 창단을 통해 춘천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학기 중이면 수업을 마친 뒤 매일 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간다. 경기 전날에는 운동복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는다. 짧은 말끝에 경기를 향한 승부욕이 묻어났다. 이서아 선수는 "춘천SC가 코치, 트레이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대회 일정도 관리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춘천에서 받은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들 이야기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



독자 이 부 용

윤희순 의사 순국 90주기 추모식에서
예원리틀싱어즈가 추모 공연을 했어요.
커다란 태극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분들의 생각을 떠올리며
정성껏 노래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독자 윤 다 현

작년 7월 봄내 소식지에 우리 가족 이야기가 실리고
지인분들께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네 번째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커지고 있어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출산이지만 고령 산모는 언제나 두렵기만 합니다.

루비 공주야, 건강하게 만나자!



독자 박 준 석



아이들과 손흥민체육공원에 들렀다가,
1박 2일 동안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지냈습니다.
덕분에 토요일 저녁을 한가지게 보냈어요.
다음 날엔 청량한 봄바람을 맞으며
숲 해설사의 나무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고요.
아이들이 실내 암벽 등반도 맘껏 누릴 수 있었어요.

행복한 추억, 감사합니다.





독자 박소미

우리 서윤이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엄마 아빠는 걱정이 많습니다.
늘 호기심 많고 밝게 웃는 서윤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즐겁게 지내길 바라.
아직은 서툴고 낯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서윤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 믿을게.
서윤이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봄날처럼 웃음으로 가득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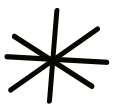
엄마 아빠는 언제나 서윤이 곁에서 응원할게.



독자 문현주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교,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는 게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참 떨리지? 하지만 잊지 마.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너희 뒤에서 든든하게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디서든 기죽지 말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너희들만의 색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반짝반짝 빛날 너희의 모든 순간을 온 마음 다해 지켜볼게!



독자 김이식

아빠엄마에게 예쁜 손주 안겨준 아들, 며느리 고맙다.
우리 손주 이건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사랑해.





산유화, 당신

글 서현숙 그림 공혜진

강대 병원(강원대학교 병원) 앞을 일부러 피해 다니던 시기가 몇 년 있었다. 춘천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시절을 모두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특정 병원 앞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몸이 아파 잠시 입원했던 이를 기억하기도 하고, 또 저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이를 아프게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일. 강대 병원 이 눈에 보이면 감정이 요동쳐서 되도록 그 앞을 지나다니지 않으려고 애썼다.

몇 년의 시간이 족히 지나 간신히 강대 병원 앞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병원 앞의 해장국집이 여전히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지나갔다. 몇 달 전에 보니, 그 해장국집 자리에 다른 영업 매장이 생겼다. 하긴 그 음식점에서 콩나물국밥을 앞에 두고 먹지 못하던 새벽이 10년도 더 지난 일이 아니던가. 나는 국밥을 앞에 둔 채 연실 눈물을 닦아내느라 바빴고, 그런 나를 보고 이모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숙아, 그만 울어. 너무 울면 너희 엄마 편하게 못 떠난다.”

엄마는 오랜 기간을 아프지도 못했다. 병 진단을 받고 반년도 채 못 앓았다. 엄마가 조금씩 아프면서 자식들의 따뜻한 돌봄도 받고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병 투정도 부렸더라면, 차라리 엄마가 오래 병치레를 해서 내가 지켜온 마음이라도 들 틈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철없는 마음인 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엄마는 벼락같이 병 진단을 받고 벼락같이 앓다가 내 곁을 떠났다.

그 새벽은 내 엄마가 강대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낸 시간이었다. 그날 밤은 몹시 길었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전날,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가족에게 말씀해주셨고 우리 가족은 모임이 있더라도 한 사람들처럼 병실에 모였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보온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흰 미음을 병원에 가지고 갔다. 아마 의사 선생님의 말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다. 엄마가 흰 미음을 몇 숟가락 드시고 기운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다.

결국 그 밤은, 지금도 무덤덤한 마음으로는 떠올릴 수 없는 밤이 되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엄마는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새벽이 다가오기 직전에 숨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매만진 엄마의 손, 그 모습과 감촉이 지금도 생생하다. 평생 일하던 엄마 손은 곱다기보다 마디가 굵었다. 살집이 없어서 손등의 뼈가 그대로 만져졌고 손등 위로 핏줄이 툭툭 튀어나온 손이었다. “엄마, 엄마”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르겠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불렀다. 이제 엄마라는 실체를 내 앞에 두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한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컷 불려야 겠다고 다짐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불렀다. “엄마, 엄마” 사랑한다는 말도 나를 기억하라는 말도 다시 만나자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 엄마”만 불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결국 작별했다.



이모가 우리 형제를 데리고 병원 앞에 자리한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갔다. 장례식장이 차려지기까지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을 거다. 그보다 이모는 엄마 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주고 싶었으리라. 동생을 잃은 이모도 많이 슬펐을 텐데 말이다. “뜨신 국물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그래야 덜 추워.” 삼월 말이었지만 새벽이 다가오는 깊은 밤은 추웠다. 마음은 더 추워서 이가 덜덜 떨렸다.

장례식장이 준비되고 우리 가족은 검은 상복을 입었다. 이제 막 여섯 살이 된 오빠의 작은 딸이 장례식장에 와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할머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슬픔을 아는 걸까. 엉엉 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더 슬퍼 다들 또 눈물을 닦았다.

언니와 오빠는 장례식 준비로 분주했지만 막내인 내가 할 일은 거의 없었다. 집의 막내는 원래 그런 존재다. 식구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구석에 가만히 있거나 딴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존재. 조문객을 맞는 곳 안쪽에 작은 방이 있었다. 방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창문이 있길래 별 생각 없이 일어나 창을 드르륵 열었다. 깜짝 놀랐다. 창문을 여니 샛노란 세상이었다. 바로 코앞에 노란 산유화가 가득 피어 있었다. 엄마 없는 캄캄한 세상에 등불을 밝힌 듯한 산유화라니…….

봄이 오면, 노란 산유화를 보면 이제 나는 단 한 사람만을 생각한다.

오래오래 가게

변하지 않아서 더 반가운 춘천의 노포들

치/커피



골목의 불빛을 따라 '평창이모집'으로



글·사진 박선정

요선동 뒷골목을 걷다 보면 반짝이는 간판들 사이, 소담히 자리 잡은 '평창이모집'을 만날 수 있다.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빛줄기에 이끌려 조심스레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서면 서너 평 남짓한 공간에 탁자 두 개와 의자가 빼곡히 놓여있다. 저녁이 되면 삼삼오오 손님들의 온기로 금세 가득찬다. 서로 익숙한 얼굴의 단골들부터,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행자들까지 좁은 자리에 어깨와 등을 맞대고 앉아 잔을 부딪친다. 요리조리 녀석들은 이모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덧 옆자리 손님과도 자연스럽게 몇 마디를 나누게 되는 분위기가 요즘답지 않게 정겹다.



평창이모집

☞ 위치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5-3

☎ 전화 255-6329 / 010-8798-6329

1970년대 말, 평창에서 결혼해 춘천으로 온 유영희(74) 씨는 야식 장사를 하며 살림을 꾸렸다. '먹고사는 일'이 곧 '먹여 살리는 일'이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초, 요선시장 골목에 자리를 잡으며 지금의 평창이모집이 됐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골목의 구실은 점점 바뀌어갔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여전한 듯하다. 늦은 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마침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음 날을 버틸 힘이 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모의 요술 부엌, 단골들의 숨은 메뉴판



녹두빈대떡, 칼국수, 동태찌개 말고도 간판에 쓰인 '안주 일체' 의미는 제법 넉넉하다. '이민수 씨(임연수어 구이)'는 메뉴판엔 없어도 단골들 사이에서는 "오늘 이민수 씨 돼요?" 하고 먼저 묻는 인기 메뉴다. 고소한 들기름에 지글지글 구운 두부 구이는 시원한 막걸리와 최고의 조합을 이룬다. 안주가 떨어져 갈 즈음 따끈한 보리밥에 밑반찬으로 나왔던 묵은지와 무생채, 콩나물을 올리고 이모표 '빠글장' 한 큰술을 더하면 더할 나위 없는 밥도둑이 완성된다.

계절이 바뀌면 부엌도 제철이 된다. 봄이면 향긋한 두릅이나 달래같은 나물이 밑반찬을 채우고,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땀 미나리를 곁들이기도 한다. 겨울이면 연탄난로 위 커다란 주전자로 끓인 파뿌리차로 속을 데우고, 알이 가득 찬 도루묵찌개를 뜨끈하게 맛볼 수도 있다. 십수 년을 함께한 무쇠 철판과 수만 번의 칼질로 깊게 패인 나무 도마, "이모 외에는 열 수 없다"는 만능 냉장고만 있으면 이모의 부엌에서는 무엇이든 똑딱 완성된다. "저희도 그거 주세요!" 힐끔 옆 테이블에서 풍겨오는 냄새와 손님들의 감탄에 어느새 새로운 안주를 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평창이모집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인, 화가, 음악가, 배우들까지 춘천의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다는 가게 곳곳에는 그들의 애정 어린 흔적이 역력하다. 가게를 향한 헌정의 시와 그림, 벽에 달린 거울에 빼곡히 꽂힌 명함들이 이곳을 아끼는 단골들의 든든한 마음을 꾸밈없이 드러낸다. 최근에는 한 손님으로부터 '평창이모집' 이야기를 시로 만든 노래가 담긴 라디오를 선물 받기도 했단다.

나에게도 이 가게는 춘천에서의 고향 같은 곳이다. 2020년 요선동에 처음 자리 잡았던 춘천 새내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집의 최연소 단골이다. 종종 타지에서 바쁜 일정을 마치고 춘천에 돌아와 이모의 손맛으로 뱃속을 가득 채우면 괜스레 헛헛했던 마음까지 풀리곤 했다. 잠시 뜸했더라도 다시 찾는 날에는 서로 "보고 싶었어!" 외치는 반가운 마음이 오간다.

단골이 된다는 것은 오랜 호흡으로 기꺼이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일이라는 걸 이 골목에서 배운다. 요선(要仙), 신선을 부른다는 동네 이름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평창이모집은 배와 마음이 고픈 이들을 불러 모은다. 오늘 밤도 요선동 골목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지켜낸 '평창이모'와 함께 이곳을 찾은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갈 것이다.



요선동 골목을 40여 년 지켜온 '평창이모' 유영희 씨

박선정 영화제는 본업, 디자인은 생업인 문어발 노동자. 2023년부터 춘천영화제 홍보마케팅실장을 맡고 있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

역사 속 잠들었던 독립 영웅을 깨운다

글 시민기자 김두산



김동섭 교수는 독립유공자 발굴에 힘쓴 공로로 춘천고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현장을 누빈 김동섭(66) 한림대 객원교수는 이제 취재 수첩 대신 빛바랜 판결문을 든다.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를 찾아 세상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 6년간 역사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영웅'을 재소환하는 작업을 해왔다.

기자 근성으로 시작한 '역사 취재'

그의 선친 김창요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서회 사건에 연루돼 평양에서 옥고를 치렀다. 하지만 북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김 교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보내야 했다.

아쉬움은 다른 이들의 기록을 찾는 일로 승화했다. 춘천고등학교 선배와의 대화에서 새로운 작업이 시작됐다. 선배의 아버지는 항일 결사 조직 '상록회' 구성원으로 옥고를 치렀으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곧장 자료 수집에 나섰다. 기자 생활로 단련된 추적 본능이 작동했다. 8개월간 집요한 조사 끝에 선배의 부친은 독립유공자가 됐다.

이를 계기로 김 교수는 국가가 미처 찾지 못한 영웅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춘천고를 시작으로 춘천농고(현 강원생명과학교), 춘천사범학교(현 춘천교육대)를 거쳐 강릉, 양양 등 영동지



역까지 발굴 범위를 넓혔다. 일제강점기 형사 조서와 판결문을 찾는 과정은 고된 노동이다. 특히 일제가 폐기한 1940년대 기록을 찾기 위해 다른 자료와의 연관성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지금까지 조사와 발굴을 통해 국가보훈부에 제출한 유공자 서훈 신청서만 220건에 달한다.

춘천고를 '항일 명문'으로 만든 집념

김 교수의 추적을 계기로 춘천고는 항일 운동의 성지가 됐다. 보훈부에 등록된 춘천고 출신 유공자 45명 중 20명이 그의 손을 거쳤다. 모호한 심사 기준으로 탈락한 이들을 위해 자료를 여러 번 보완하는 과정도 있었다. 일본인 교사 집을 습격하고 재판정에서 기개를 굽히지 않았던 학생들의 역사를 판결문 속에서 되살려냈다.

자녀가 없어 연락이 어렵던 박승간 씨 사례는 큰 보람을 남겼다. 수소문 끝에 형제에게 훈장이 전해졌다는 소식에 자신의 노력이 가치 있게 쓰였음을 느꼈다. 정부로부터 서훈 여부에 관해 직접 결과를 듣지는 못하지만, 연락 닿는 후손들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가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보상 없는 길, 사명감으로 걷는다

유공자를 밝혀내는 작업은 그에게 명예나 보상을 주지 않는다. 때로는 전공과 무관한 일에 시간을 쏟느니하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독립 영웅 한 사람을 찾으면 판결문 속에서 또 다른 동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3·1 운동부터 학도병까지, 강원도의 독립운동사는 김 교수의 손끝에서 되살아난다.

김동섭 교수는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며 "나를 키워준 고향에 대한 보답이고, 스스로 느끼는 보람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자꾸만 독립유공자들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춘천 기업이 만든 엑스레이 NASA 우주선에 실린다

클 시민기자 전영호



레메디 창업자인 이레나 교수가 휴대용 엑스레이 'Xcam6'을 소개하고 있다.

지상에서 쓰던 엑스레이를 이제 우주 비행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춘천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기업 레메디의 초소형 휴대용 엑스레이가 NASA(미국항공우주국) 우주선 탑재 대상 기기로 선정됐다. 지역에서 키운 기술이 세계 무대와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우주인을 위한 초소형 엑스레이

우주에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무중력 환경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작업 중 다치거나 치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NASA가 작고 가벼운 엑스레이 장비를 찾은 이유다.

엑스레이의 용도는 다양하다. 우주선 구조물이나 장비를 분해하지 않고도 이상 여부를 살필 수 있는 '비파괴 검사'에 활용한다. 사람의 건강과 장비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도구인 셈이다. 이를 위해 NASA는 단순히 작은 장비가 아니라, 좁은 우주선 안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이동이 쉬우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초소형 장비를 찾았다.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한 레메디

NASA는 조건을 충족하는 장비를 찾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기업의 제품을 검토했다. 3년에 걸쳐 성능과 내구성을 비교 평가했다. 그 결과 최종 선택한 장비가 레메디의 휴대용 엑스레이 'Xcam6'다.

레메디가 선택받은 이유는 초소형·저선량 기술에 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이동이 쉽고, 방사선량 부담을 줄인 제품이다. 병원 안뿐 아니라 이동검진, 오지, 재난 현장 등에서 강점이 있는데, 이 점이 우주 환경과도 맞아떨어졌다.

NASA가 이런 형태의 엑스레이 시스템을 우주비행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Xcam6는 올해 발사 예정인 SpaceX 저궤도(지구에서 가까운 우주비행) 유인 우주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우주선 장비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실제 우주비행에서 적합성 검증이 완료되면, 향후 국제우주정거장과 심우주(지구에서 먼 우주비행) 탐사 임무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에서 시작한 기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목표

레메디는 춘천 출신으로 강원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원자력공학 석·박사를 마친 이레나 이화여대 의공학교실 교수가 2012년 창업한 기업이다. 춘천을 기반으로 저선량·소형 방사선 기술을 개발해 왔고,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에서 출발해 휴대용 영상 진단 장비로 기술을 넓혀왔다. 그 결과가 이번 NASA 탑재 대상 기기 선정으로 이어졌다.

이레나 교수는 “큰 병원 안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이동이 어렵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소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자 했다”며 “연구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기 좋은 춘천에서 앞으로도 현장에 더 가까운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레메디의 이번 성과는 춘천에서 자란 기술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메이드 인 춘천' 기술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 기대를 모은다.



NASA가 레메디의 엑스레이를 활용해 우주복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56년 만에 열린 교문

춘천기계공고 새로운 시작

글 시민기자 박민철

올해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봄은 조금 특별했다. 1970년 개교 이후 56년 동안 남학생만 입학했던 춘천기계공고에 올해 처음으로 8명의 여학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남학생들 사이로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함께 자리한 입학식은 학교 역사에 작지만 분명한 전환점으로 남았다.

기술 교육의 문을 더 넓히다

이번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히 학교 운영 방식이 바뀐 데 그치지 않는다. 직업계고 지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더 많은 학생에게 기술교육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고민이 그 배경에 있었다. 김만중 교무기획부장은 “성별에 관계없이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동문회가 첫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장면 역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준비

학교도 오랜 시간 이 변화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 8월 신축 교사로 이전하면서 탈의실과 화장실, 실습 환경을 새롭게 갖췄고 외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간도 정비했다. 달라진 것은 시설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도 함께 강화했다. 처음에는 남학생 중심 학교에 여학생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학교생활은 걱정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남녀공학 전환 이후 함께 배우는 교실 풍경

학생들의 목소리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자동차과 채연우 학생은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잘 도와주고 배려해 줘 학교생활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과 이가영 학생도 “모두가 자기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보다 자신의 꿈을 향한 의지가 더 컸던 셈이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진심은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어 주고 있었다.

김 부장 역시 학교 분위기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여학생들의 입학 이후 남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인사를 나누는 모습,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말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보인다는 설명이다. 학교를 바꾸는 것은 제도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 가는 태도와 마음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

더 많은 꿈을 위해 열린 교문

춘천기계공고의 변화는 한 학교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술교육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다. 이제 춘천기계공고의 교문은 더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 누군가의 첫걸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 이번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가능성의 문으로 이어질길 기대해 본다.



춘천기계공고 첫 여학생들이 함께한 2026학년도 입학식

김경숙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도사

22년간 어린이 교통안전길잡이로 활약

글 시민기자 김건희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뿌듯하다. 마음속으로 ‘내가 조금은 기여했겠지’하고 생각한다.” 22년째 춘천 지역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김경숙(63)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도사의 말이다. 그는 2004년 4월 위촉된 이후 강원도지사 표창장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감사장을 7차례나 받으며 꾸준히 활동해 왔다.

교사의 꿈, 교통안전 교육으로 이어지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올바른 교통 습관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 소방청 등과 협력해 도서·읍면 지역과 도시 외곽 학교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김경숙 지도사는 지인의 소개로 이 일을 알게 됐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도전했다.



그는 “사범대에 가지 못해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 교사의 꿈을 조금은 이룬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온 비결에 대해 김 지도사는 특별한 사명감보다 ‘끈기’를 이야기한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편이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 그동안 자신만의 원칙도 생겼다. 교육 장소에는 항상 10분 이상 먼저 도착하고, 교육 자료도 꾸준히 보완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날씨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수업을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들과의 약속,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과 나눈 작은 대화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 엄마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일 때 빨리 뛰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한 아이에게 김 지도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누구니? 엄마도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겠네.” 아이들과 웃으며 나눈 이런 순간들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이후 활동이 재개됐지만 교육을 함께 나갈 동료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지도사는 춘천 전역을 혼자 다니며 교육을 이어왔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올해는 후배 지도사 6명이 새로 위촉됐다. 김 지도사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아이들을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면 좋겠다.”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활동한다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도사의 발걸음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향한다. 앞으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이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르신 교통안전도 중요한 만큼 교통안전지도사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22년 동안 춘천 어린이들의 안전한 길을 지켜 온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김경숙 지도사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월 11일(수)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2월 3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나, 제2차 본회의 심사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든든한 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안과 이슈

제2차 본회의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

윤민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중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강원 순환 철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춘천~원주 철도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의 안건 목록

구분	의안명	제출(발의)자	결과
조례안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원안가결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부결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보류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기 의원	원안가결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건 의원	수정가결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배숙경 의원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기 의원	수정가결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제철 의원	수정가결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숙경 의원	수정가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가결
동의안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춘천시장	가결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가결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가결
공유재산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현안과 이슈

제2차 본회의

「강원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박제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 김보곤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춘천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단체의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운기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부모 및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해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상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규모 차폐 등 환경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저감 목적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제철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 수리비 규모가 확대되고, 현행 수리비 지원 기준이 기종별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농기계를 대형과 중소형으로 분류해 지원 기준을 이원화하고 대형농기계의 지원 상한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가의 과도한 자부담을 경감해 농업인의 경영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배숙경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배경

춘천시로 전입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체계를 재정비하고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설해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 조례



대표발의 신성열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 배경

춘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야간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5분 자유발언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김보건



송전선로 지중화, 성과가 아닌 선례로

최근 후평동 주거지 인근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주민 불안과 도시 미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때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민원이 누적된 이후에야 해결이 논의되는 사후 대응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춘천시는 주거지 인근 송전·배전 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갈등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검토와 선제적 관리 원칙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신성열

춘천시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 책임 있는 난방 복지 실천

춘천은 '춘베리아'라 불릴 만큼 혹독한 겨울 기후로 인해 많은 가정이 난방비 부담과 노후 보일러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큼니다. 우리 시가 복지시설 난방 개선에 노력해 온 점은 의미 있지만, 개별 가정에 대한 노후 난방기기 교체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안정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따뜻한 겨울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의원 김용갑

'첨단 지식 도시'의 역설, 현장이 마주한 성장의 무게

춘천시는 2024년 춘천ICT벤처센터를 개소하며 혁신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창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달리 공동관리비가 과도해 실제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동관리비 지원이나 운영 효율화를 통한 관리비 조정, 전용 펀드 연계·판로 지원·멘토링 등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이 신속히 정책으로 반영되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원 정재예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체계 혁신 촉구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밀집된 점포 구조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 정밀 점검과 주기적 교체 체계 구축 ▲자동화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AI·IoT가 결합된 화재 조기경보 확대 적용을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을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원 박제철

춘천시 동북부 권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촉구

춘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 권역 현안이 더 이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동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신북항공대 이전 ▲소양호 교량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동면은 인구 증가에 비해 행정·문화·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고, 신북항공대는 오랜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민 피해가 누적되어 이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양호 교량 건설은 북산면의 고립을 해소하고 의료·통학 등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결단과 실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설 맞이 관내 복지시설 25개소 위문품 전달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 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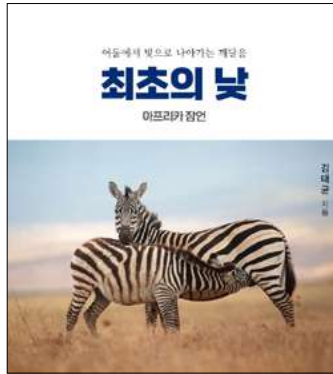


소양강 처녀

글 김현용

김현용 한림대 명예교수의 장편소설 『소양강 처녀』는 춘천 서면의 한 동네 잔치 풍경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1960년대에 준공된 춘천댐과 의암댐 이야기로 문을 여는 소설은 흥국사, 신연교, 의암호, 봉의산, 번개시장 등 춘천의 풍경과 기억을 촘촘히 그려 낸다. 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호수 위로 번지는 빛과 바람 - 작가는 그 익숙한 풍경 속에 묘한 아름다움을 새겨 넣는다. 춘천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공명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작가는 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라는 상징을 통해 기다림의 이미지로 소비되던 인물을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되살려 낸다. 노래가 멈춘 자리에서 소설이 시작된다.

출판사 푸른생각 금액 2만원



최초의 낮-아프리카 잠언

글 김태균

아프리카 현지에서 오래 살아오며 아프리카의 삶과 문화를 한국에 소개해 온 활동가 김태균의 책 『최초의 낮-아프리카 잠언』이 출간됐다. 책 속에는 원주민들 사이에 스며들어 살며 마주한 대자연과 생명의 섭리에서 길어 올린 아프리카의 지혜가 담겨 있다. 얼룩말과 사자, 초원과 바다, 구름과 나무, 새 등 아프리카의 풍경이 과장 없는 문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 '길을 잃는 것도 길을 배우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은 결과만을 좇는 현대 사회의 통념을 조용히 돌아보게 한다. 경쟁에 앞서기 위해 달려온 이들에게 느림과 실수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지혜를 전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리고 책을 덮은 뒤에도 독자들의 하루는 분명 다른 속도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변화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하다.

출판사 아담스 금액 2만원



당신의 왼쪽은 나의 오른쪽

글 탁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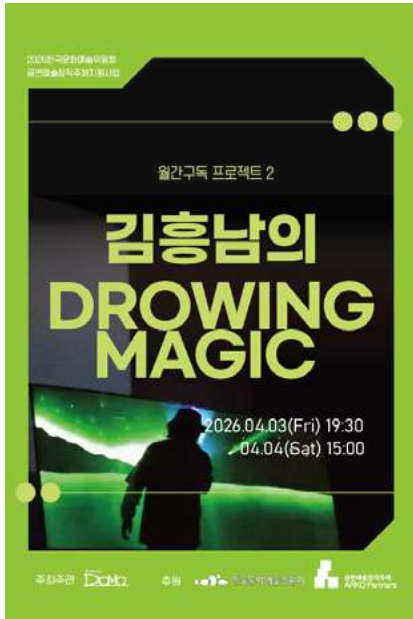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탁운우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당신의 왼쪽은 나의 오른쪽』이 출간됐다. 시집은 이 사회의 변방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한국 이주여성들의 삶과 애환을 꼼꼼히 기록한다.

K라는, H라는, M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당신들 - 우리가 굳이 알려 하지 않았고 애써 외면해 온 사람들이다. 시인은 이 시집을 그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말한다. 그들의 하루가 헛되지 않기를, 그 고통이 다시 누군가의 빛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집 전체를 관통한다. 미려한 수사나 꾸밈 대신 변방의 삶을 차분히 기록하는 것, 그것이 탁운우 시가 지닌 힘이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 시집이다.

출판사 달아실 금액 1만1천원

봄내 아트

봄내가 추천하는 이달의 예술소식



월간구독 프로젝트

공연

<김흥남의 드로잉 매직>

마임이스트 겸 아트 퍼포머 김흥남과 함께하는 언버벌(non-verbal) 미술 퍼포먼스입니다. 마임과 미술을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으로, 비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예술의 조화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전달합니다.

- * 관람료 : 3만원
- * 할인 혜택은 홈페이지 참고

일시 4.3.(금) 19:30, 4.4.(토) 15시
장소 아트팩토리봄 문의 263-7222



춘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공연

<백건우 & 슈베르트>

'건반 위 구도자' 백건우가 피아노 리사이틀로 춘천 관객을 만납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고백의 음악으로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 * 프로그램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3번 가장조 OP.120, D.664
브람스 4개의 발라드 OP.10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가장조 D.959
-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2019년생) 이상 관람
- * 관람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일시 4.10.(금) 19:3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문의 259-5822



춘천시립교향악단

공연

<2026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국내 최대의 교향악축제에 춘천시립교향악단이 초청받아 전국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합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2019년생) 이상 관람
- * 관람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 * 예매 : www.sac.or.kr(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일시 4.19.(일) 17시 문의 259-5869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춘천시립합창단 제127회 정기연주회 〈합창, 재즈하다〉

공연

합창단의 화음과 재즈 퀸텟의 리듬이 만나 클래식의 경계를 허무는 세련된 무대를 완성합니다. 재즈의 낭만과 합창의 깊은 울림이 어우러지는 공연에서 춘천의 봄을 만나보세요.

- * 관람연령 : 초등학교(2019년생) 이상 관람
- * 관람료 : 춘천시민 1만원, 청소년 및 경로 7천원, 그 외 지역 1만5천원

일시 4.23.(목) 19:3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문의 259-5874



2026 고음악의 향연 〈이탈리안 바로크 1〉

공연

리코더 마이스터 조진희, 고음악 연주자 조성빈과 유승균이 함께하는 Ensemble 415가 바로크 시대 실내악의 핵심인 트리오 곡을 소개합니다. 고음악의 정통성을 이해하고 예술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무대입니다.

- * 관람료 : 2만원



왼쪽부터 고음악 연주자 조성빈과 유승균

일시 4.28.(화) 19:30 문의 259-5845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시립국악단 제9회 정기공연 〈윤희순은 살아있다〉

공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불꽃 같은 투쟁을 국악의 웅장한 서사로 그려냅니다. 붓끝으로 민족의 얼을 새기고 총을 들어 땅을 지켰던 그녀의 숭고한 생애를 재조명합니다.

- * 관람연령 : 초등학교(2019년생) 이상 관람
- * 관람료 : 춘천시민 1만원, 청소년 및 경로 7천원, 그 외 지역 1만5천원

일시 4.30.(목) 19:3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문의 259-5874

봄내 아트

봄내가 추천하는 이달의 예술소식



사진으로 만나는 춘천의 기억

전시

그 골목, 아직 기억나세요? 옛 사진 속 춘천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춘천의 시간을 따라, 익숙한 도시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 보세요.

* 평일 9~18시
(공연 있는 날은 공연 종료 시까지)

일시 2.27.(금)~5.3.(일) 문의 259-584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로비 2층



춘천학연구소 〈춘천 근대 교육 130년, 최초의 학교들이 새긴 교육도시의 역사〉

전시

강원도 근대 교육 도입 130년을 맞아 '교육도시 춘천'의 근현대 학교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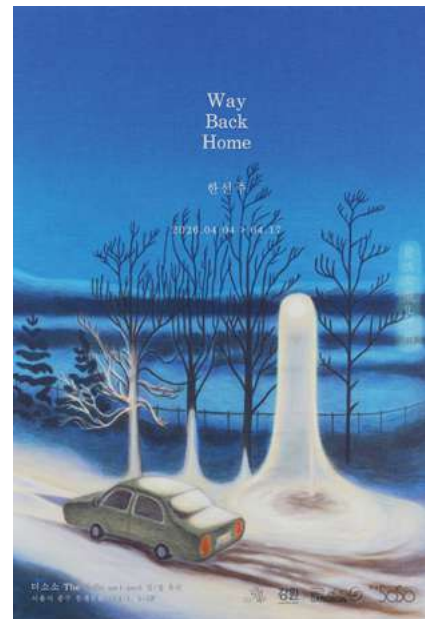
일시 3.23.(월)~5.29.(금) 문의 261-5105
장소 춘천문화원 로비

제12회 한국화가 항계 서영림 개인전 〈필묵으로 깨운 자연의 숨결〉

전시

구름, 안개, 바다, 산하가 빚어낸 자연의 생동감을 필묵 향으로 전합니다. 5m 크기의 대형 대표작을 포함해 15점의 작품 앞에서 묵객의 깊은 숨결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 4.1.(수)~4.7.(화) 문의 010-4466-5467
장소 명동 지하상가 갤러리 상상언더



한선주 개인전 〈Way Back Home〉

전시

삶과 죽음, 유한과 영원의 경계에서 인간 존재의 귀로를 탐색하는 회화 작업을 선보입니다.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잃어버린 '본래의 나'를 향한 내면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기쁨과 슬픔이 갈마드는 삶의 여정을 회화속 풍경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시 4.4.(토)~4.17.(금)
장소 서울 더소소갤러리 문의 02-2277-8154

그리다 속 전 〈각자의 자리〉

전시

그리다아트스튜디오 수강생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그림을 선보입니다.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의 결을 나누면서, 저마다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 따뜻한 관심 속에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일시 4.3.(금)~4.8.(수)
장소 춘천미술관 문의 010-7299-0940



“休” 멈춤!

전시

그리고 다시 시작

일상의 흐름을 끊고 마주한 찰나의 심은 내일로 움직이게 하는 따뜻한 연료가 됩니다. 황희령, 백애희, 황조령, 박민준 등 4명이 심과 회복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회화, 어반스케치, 사진 등 100여 점을 전시합니다.

일시 4.8.(수)~4.15.(수) 문의 010-8478-5467
장소 명동 지하상가 갤러리 상상언더

유준 개인전

전시

〈추억 그리움 너머〉

고(故) 김현식 옥산가 회장의 1주기에 맞춰 열리는 추모전입니다. 김 회장의 생전 글을 모으고, 그와 가까웠던 예술인들이 참여해 유고집을 준비했습니다.

* 추모전 및 출판기념회 : 4.18.(토) 16시

일시 4.17.(금)~4.22.(수)
장소 춘천미술관 1층 문의 010-2211-9609



박복균 개인전

전시

〈꽃, 정원, 그리고 영원의 색〉

‘정원’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 그 안에 공존하는 긴장과 본능을 바라봅니다. 빛과 색을 탐구해온 작가는 강렬하게 살아 있는 색채로 자연을 새롭게 풀어냅니다.

일시 4.24.(금)~4.29.(수)
장소 춘천미술관 1층 문의 010-9401-8568

한국민족미술인협회

전시

춘천지부 <RE:LINK 봄의 재생-연결되나 봄>

재생(RE)과 연결(LINK)을 주제로, 멈췄던 시간과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자연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예술로 풀어냅니다.

일시 4.24.(금)~4.29.(수)
장소 문화공간 역 문의 010-8827-7852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강연

〈시민지성 한림연단〉

시민지성 한림연단은 포럼 형식을 응용한 공개 토론형 강연입니다. 사회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시민과 학생이 질의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한림대 도헌학술원은 학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공공의 지적 토대를 넓히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 프로그램 일정

김종희 한국디카시인협회장 4.1.(수) 19시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4.15.(수) 19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4.29.(수) 19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5.13.(수) 19시
유경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장 5.27.(수) 19시

일시 프로그램별 일정 참고 문의 248-2923
장소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관 4층 강당

나눔

효자3동 자율방범대는 1월 29일 순찰 중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돼지저금통(15만 6,520원)을 발견했다. 소식을 접한 **강금옥 자율방범대장**과 **김남곤 자율방범대원**은 기부자의 뜻에 동참해 10만 원씩을 각각 추가 기부해, 총 35만 6,520원을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주)**여미푸드**(대표 오용승)는 2월 11일 120만원 상당의 한돈양념불고기를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본부장 이제관)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하고, 가스안전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효자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안순)는 2월 11일 가래떡 5박스를 효자1동 경로당에 전달했다.

동원감리교회는 2월 11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쌀 35포(350kg)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는 2월 1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0만원을 동내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이계영)는 2월 11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컵떡국 30박스를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가 2월 11일 개최한 후원품전달식에서 **춘천중앙성결교회**(담임목사 장기동)는 양곡 200kg, **가톨릭춘천신협**(이사장 배종호)은 양곡 60kg, **보문각**(대표 김선미)은 스팸 선물세트 10개를 후원했다.



신사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2월 12일 신사우동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사랑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순자)는 2월 12일 돌봄이 필요한 이웃 30가구를 대상으로 손수 준비한 떡을 나누는 '복(福) 나누미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변옥철)는 2월 12일 취약계층 80가구에 떡, 만두 등으로 구성된 행복나눔꾸러미를 전달했다.

소양강새마을금고(이사장 양봉현)는 2월 13일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급금상자와 라면을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효자2동 주민 **홍재호** 씨는 2월 13일 저소득 가정을 위해 라면 25상자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남산면 **백리옥**(대표 이경진)은 2월 13일 어르신들을 위해 한우설렁탕 50인분을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동내면에 거주하는 **김숙희** 씨는 2월 19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만 원을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토마스 요양병원(원장 홍진식)은 2월 26일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 20세트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주식회사 더월(대표 안재규)은 3월 5일 저소득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새학기를 맞아 2월 한달 간 드림스타트 아동 중 예비 초등학생 17명에게 책가방, 입학준비 물품을 지원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3월 9일 저소득 가구를 위해 쌀 50kg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효자2동 6통 5반장 **권옥란** 씨는 3월 9일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받은 금액 50만원을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봉사 및 행사

동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장환), **동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숙)는 3월 9일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25박스와 김 20세트를 동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2월 11일 어려운 이웃 25가구에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2군수지원여단(여단장 김민식)은 2월 12일 신동면 증3리 독거노인 2명에게 선물세트(라면, 음료, 건빵 등)를 전달하는 후원행사를 진행했다.



강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2월 12일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43가구에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박근홍)는 2월 12일 취약계층 70가구에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보타사관음손 봉사단(단장 차경익, 주지 진철)은 2월 12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43가구에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서면 3개 자율방범대(서면, 서면중앙, 오월)와 **서면파출소**(소장 조환배)는 2월 13일 서면 일원에서 범죄예방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합동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강원대학교 데이터보안활용 교육봉사 동아리 '사이음'(회장 안효빈, 이세영 융합보안학과 교수)은 2월 23일 후평2동 주공 7단지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



후평1동 뒤뜰상인회(회장 김현섭)는 2월 26일 상인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도로변 수목 보호대를 철거하고 태극기를 설치해 뒤뜰골목형상점가 구간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다.



봄내골소식

춘천의 미담사례 소개

후평3동 7통장 **최유하** 씨는 현대4차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태극기 20개(13만2,000원 상당)를 구입, 선착순 20가구에 배부했다.

후평동 **인공폭포상인회**(회장 송명수)는 태극기 60개를 구입해 은하수 상점가를 태극기 거리로 조성했다.



후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희)는 2월 27일 **참 인테리어**(대표 박병두)에서 기탁한 연탄 300장을 에너지 취약 계층 독거어르신 1가구에 배달했다.



후평2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위원장 최경숙)는 개학을 맞아 3월 3일 부안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더든든한반찬가게(대표 조승호)는 2월 13일과 2월 25일 효자1동 독거 및 장애인 30가구에 반찬과 국을 전달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고복희)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춘천시립복지원 생활인 50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인자)는 3월 10일 남면에 거주 중인 저소득 독거노인 51가구에 '행복나눔 반찬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근화동 자생단체와 번개시장상인회, 근화소양자율상권조합은 3월 9일 수변산책로와 소양아트서를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효자1동 춘천성도교회(담임목사 이정화)는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지역 어르신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는 화요 국수 나눔봉사를 진행한다.

장학금 기탁

세마을운동 춘천시지회(대표 최중복)는 2월 25일 장학금(100만원)을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춘천시협의회(대표 김상규)는 3월 9일 장학금(500만원)을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신한은행(대표 정상혁)은 3월 10일 장학금(1,000만원)을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예방을 위한 산행 시 행동요령

3 산행 중

음식물 버리지 않기

음식물
버리기 X

4 산행 중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기 *신고시 포상금 지급

장소: ○○산 갈림길
시간: 오전 9시30분
신고자: 김철수 입니다

접근 X

2 산행 중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기

○○산 등산로 안내

현위치

출발

도착

○○산 ASF
발생지역 X

1 산행 전

방문지역 ASF
발생여부 확인하기
(wadis.go.kr)

5 하산 후

신발을 깨끗이
털고 소독하기

6 하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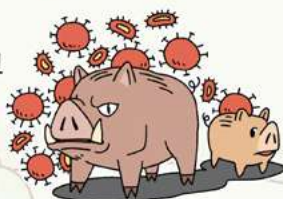
귀가하여 신발 세척 및
등산복 세탁하기

7 하산 후

1주일간 양돈농가
방문 및 축산관계자
접촉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와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쉽게 전염되고
치사율이 높아 멧돼지 생태 및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환경정책과 ☎ 250-4241 신고처 통합콜센터 ☎ 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062-949-4323/4340

한 장으로 보는 춘천

대룡산의 봄

발 아래 노란 꽃들이 흐드러지고, 그 너머로 춘천이 구름 속에 잠겨 있다.

대룡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도시는 한없이 작고 고요해진다.



춘천시
시정소식지 봄내
명예시민기자 모집

춘천시 시정소식지 봄내

명예시민기자 모집 공고

2026. 4. 10.(금)
4. 15.(수)

춘천시가 시정소식지 봄내를 함께 꾸려갈 '명예시민기자'를 모집한다.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사 작성 능력을 갖췄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명예시민기자는 시민의 시선으로 매달 '도란도란' 코너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이야기를 발 빠르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기삿거리를 발굴하는 역량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올해 신설한 '스포츠 도시' 특집도 함께 담당한다. 스포츠를 매개로 하나 되는 공동체와 건강한 시민의 삶에 주목하는 지면이다.

활동기간은 5월 3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 1년간이다. 도전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4월 10~15일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원고와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해  bomnae1993@gmail.com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란도란'에 게재할 수 있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사 원고 2편을 써서 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기획해 매체에 실린 기사, 블로그 등 포트폴리오는 최대 3건까지 첨부할 수 있다. 춘천시는 이후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 평가를 거쳐 명예시민기자를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인원

명예시민기자 0명

접수기간

2026. 4. 10.(금) ~ 4. 15.(수)

문의

봄내소식팀 250-4170, 4169

활동기간

2026. 5. 3. ~ 2027. 5. 2.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원고, 포트폴리오

* 합격자는 추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

알림마당

시민과 가까운 소식, 생활에 도움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시정정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안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교육내용: 인지능력진단검사 및 VR 체험
 ※교육이수 시 자동차보험 5% 할인 혜택(보험사별 상이)
교육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우두동 소재)
교육문의: ☎ 250-3049

성인문해교육기관 안내

성인문해교육: 저학력,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 기초문해, 디지털 문해, 생활문해 등의 교육

관련문의: ☎ 245-5192

교육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연락처
춘천시평생학습관	디지털문해 (스마트폰 활용 등)	245-5182
춘천교육문화관	학력인증 초등과정	258-2515
춘성교육도서관	디지털문해 (스마트폰 활용 등)	242-6636
(사)한국문해 교육협회 춘천지부 <봄내배움터>	성인한글반, 생활문해	244-3009
신흥늘배움터	성인한글반, 성인영어반, 컴퓨터교육	253-7736
소양야간 중·고등학교	중등 및 고등 검정고시 준비반	254-2036
예맥야간학교	성인한글반, 성인영어반	256-3668

소양에너지페이 상시접수 안내

일시: 연중수시 방문신청 **접수장소:**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접수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기·수소차 소유자 대상
지급기간: 사용자 지정 교부일로부터 5년간(연 1회)
유효기간: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일로부터 2년
관련문의: ☎ 250-4349
 ※ 지급액: 태양광(3kW) 6만원 / 전기·수소차 5만원 등

체험행사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안내

상담내용: 각종 세금문제 전화, 방문 상담
상담대상: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재능기부로, 대상자가 아닐 시 일부 상담 제한
관련문의: ☎ 250-4029

세무사	주소	연락처
김보경 세무회계사무소	중앙로 101, 3층	256-3331
박상희 세무회계사무소	중앙로 112-1	252-1100
양종천 세무회계사무소	안마산로 169-11	264-2237
이창희 세무회계사무소	춘천로17번길 31, 304호	911-3344
세무사 최민섭사무소	중앙로 124번길 2	264-4480
세무회계 환택스	안마산로 169-11	264-2238
안김세무회계	온의동 155-6, 4층	251-3541
이선우 세무회계사무소	퇴계로 67, 3층	242-3443
지영훈 세무회계사무소	후석로 10, 5층	264-7111
안응석 세무회계사무소	춘천로 229, 은하빌딩 5층	241-6180

2026년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알림

공급기간: 4월 ~ 9월 (예정)
 - 수요일에 따라 공급기간 변동 가능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 09:30 ~ 16:30
 - 농협 휴무일 제외 / 당일 공급물량 조기소진 가능
공급장소: 6개 미생물 공급소
 - 신북농협, 춘천강동농협, 서춘천농협, 동춘천농협 (경제사업소), 남산농협(광판지점), 춘천농협(경제사업소)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공급물량/미생물 종류: 250톤 /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관련문의: ☎ 245-5945



체험행사

캠핑페이지 기록물 수집 및 기증 안내

수집대상

- 비행장 활주로 건설 당시 기억과 기록물
- 캠핑페이지 미군부대 조성부터 기지 폐쇄까지의 관련 기록물
- 캠핑페이지 주변 일상적 생활사 관련 기록
(박물, 사진, 영상 등)

기증방법: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

기증장소: 시청길 11, 춘천시청 1층 총무과 기록관리팀

기증문의: ☎ 250-3634, 3035

불법유동광고를 수거 시민 보상제 안내

사업기간: 3월 ~ 12월

사업내용: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명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수거대상 광 고 물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 인도에 살포된 명함·전단지
수 거 제외대상 광 고 물	신문지 내 삽입된 전단 선거·행정·홍보용 전단 공동주택 내 현관문 부착 전단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보상단가	명함: 20원 / 전단지: 100원 / 벽보: 200원
보상한도	1인당 최대 10만원 / 월

신청접수: 참여대상자 방문 신청, 매월 첫째 주

※첫째 주에 공휴일이 많은 경우 둘째 주

접수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문의: ☎ 250-3103

2026년 춘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공시 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규모(통합회계): 1조 8,372억 원

예산규모(일반회계): 1조 5,027억 원

재정자립도: 18.72% **재정자주도:** 57.04%

관련문의: ☎ 250-3377

모집안내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안내

신청대상: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상담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문제
(내방상담/가정방문상담/온라인상담)

상 담 료: 전액 무료

상담문의: 강원스마트쉼센터 ☎ 249-3075, 1599-0075

홈페이지: <http://www.iapc.or.kr>



상담 신청하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입양 홍보

공고확인: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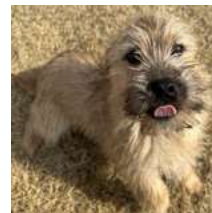
개체면담: 공고 번호 확인 (최대 3마리/1일)

입양신청: 신청서 작성 및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이수

숙려기간: 입양신청서 작성일 포함 3일

(입양심사, 내장칩 등록, 질병검사, 목욕 및 미용)

입양문의: ☎ 245-5982



공고: 강원-춘천-2025-00361

품종: 믹스견(수컷)

나이: 2025년생 추정

체중: 5kg

특징: 두더지같은 외모가 매력 포인트



공고: 강원-춘천-2026-00032

품종: 믹스견(수컷)

나이: 2026년생 추정

체중: 4kg

특징: 멈추지 않는
오동통한 '꼬리펠러'



입양 바로가기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26. ~ 12. 4.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 5등급 자동차

신청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인터넷 신청: emissiongrade.mecar.or.kr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인

보조금 청구서 접수: 기후에너지과 ☎ 250-4333

시정정보

2026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피보험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6. 2.10. ~ 2027. 2. 9.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 1644-9666(내선 1번)

관련문의: ☎ 250-3724

보장항목

교육기관명	연락처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2천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1천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2천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 ~ 14급)	1천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1,5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개 물림사고 사망	1,500만원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내원 진료비	1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2천만원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	1,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위로금	20만원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1천만원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저소득층 만성질환 무료검진 안내

검진대상: 2,600명(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실시기간: 연중

검진항목: 골다공증 검진, 동맥경화 검진

검진기관: 가족보건의원 ☎ 260-8900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12.22. ~ 2026.12.11.

지원기간: 2026. 1. 2. ~ 2026.12.31.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지원내용: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금액 지원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전자바우처(카드) 금액 차등 지원

구분	단위: 천원
인원 (월 지원금액)	1인(40), 2인(65), 3인(83), 4인(100), 5인(116), 6인(131), 7인(145), 8인(159), 9인(173), 10인 이상(187)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신청방법: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www.foodvoucher.go.kr
(ARS) 전화 신청(1551-0857)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용 처: 94개 업체, 6만여 개 매장

2026년 의료수급권자 무료 건강(암)검진 안내(연중)



검진기관 조회

검진기관: 전국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관련문의: ☎ 245-5483

구분	대상	검사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월령별 8회)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등
일반 건강검진	20~64세(썩수해 출생자)	흉부X-ray, 혈액검사 등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66세 이상(썩수해 출생자)	골밀도, 폐기능, 인지기능 등
위암	40세 이상(썩수해 출생자)	위장조영촬영
대장암	50세 이상	분변잠혈검사
간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간초음파 등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썩수해 출생자)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썩수해 출생자)	세포도말검사
폐암	54~74세폐암고위험군(썩수해출생자)	흉부CT검사

※간암 고위험군: B·C형간염 양성·간경변·만성간질환자

※폐암 고위험군: 30갑년 이상 흡연자



시정정보

2026년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사전컨설팅: 3.16. ~ 4. 8.

신청기간: 3.25. ~ 4. 8.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사업내용: 자원순환, 돌봄, 농촌문제 해결 활동 등 마을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직접 고민하고 실행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마을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규모: 마을공동체 24개소 내외 *사전 컨설팅 필수

관련문의: ☎ 250-4134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비 (0단계)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	100만원
초기 (1단계)	0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 또는 1년 이상 활동한 공동체	500만원
확장 (2단계)	1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 또는 2년 이상 활동한 공동체	700만원
전환 (3단계)	2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 또는 3년 이상 활동한 공동체	300만원
정착 (4단계)	3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 또는 5년 이상 활동한 공동체	지원없음
공동사업	2개 이상 공동체 협업	1,000만원

※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체험행사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 www.cchildcare.or.kr

관련문의: ☎ 241-0756

프로그램명	신청대상 및 진행일시	인원
가족에 대한 인식과 협력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4. 4.(토) 10:00~12:00	10명
아동학대예방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4. 15.(수) 10:30~11:30	10명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4. 10.(금) 10:30~12:00	15명
잘 먹는 아이로 만드는 식습관 코칭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4. 29.(수) 10:00~12:00	15명
[쑥쑥신체놀이] 튼튼체육	관내 20년~22년생 자녀와 양육자 4. 4.(토) 10:00~12:10 4.18.(토) 10:00~12:10	회차당 10명
[퐁퐁오감놀이] 창의폭발 퍼포먼스 미술	관내 22년생~24년생 자녀와 양육자 4. 4.(토) 14:30~17:10 4.25.(토) 14:30~17:10	

제42회 의암제 개최 안내

행사일시: 4.12.(토) 09:50 ~ 12:00

행사장소: 의암류인석기념관(남면 충효로 1503)

참여대상: 시민 누구나

주최/주관: 의암제위원회 / 춘천문화원, 춘천향교

후 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관련문의: ☎ 264-3980

체험행사

춘천시립도서관 문화행사

관련문의: ☎ 245-5063, 5138, 5301

1. 시민과 함께하는 4월 도서관 콘서트 - 전통퓨전뮤직공연 'the 감'

대상: 전연령 일시: 4.18.(토) 14시 ~ 15시

접수방법: 현장접수

2. 2026년 4월 인문학강좌 - 세상을 읽는 렌즈, 과학

대상: 성인 일시: 4월 매주 목요일 / 19시 ~ 21시

접수방법: 현장접수,

온라인(홈페이지 → 독서문화행사 → 문화행사 신청)

춘천시주짓수회 성인 무료강습 행사

모집대상: 여성 19세 이상/남성 40세 이상

모집인원: 월 단위 선착순 5명(월 4회)

강습시간: 매주 수요일 13시 ~ 14시

강습장소: 유타주짓수(퇴계로 199)

신청방법: 문자 ☎ 010-6289-2880

또는 카톡(ID: UTAGYM)

준 비 물: 간단한 운동복

알림마당

시민과 가까운 소식, 생활에 도움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체험행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춘천지회 강연

참여대상: 어린이 책에 관심있는 어른
강연장소: 춘천시립도서관 2층 시청각실
신청문의: 지회장 ☎ 010-8799-7995
교육부장 ☎ 010-6383-3117



신청 바로가기

제19회 동네면 민민의 날 화합 큰잔치 행사

일시: 4. 4.(토) 10시 장소: 동네초등학교 운동장
관련문의: ☎ 245-5386

시립청소년도서관 '북(book)-소리 힐링 캠프'

행사일시: 4.11.(토) 17시~18시 참여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행사장소: 시립청소년도서관 후면 잔디마당
행사내용: 어린이 합창단(예원리틀싱어즈), 재즈5중주(툰어라운드)
관련문의: ☎ 245-5762

춘천미래동행재단 봄내길 야간걷기 행사

행사일시: 4.18.(토) 18:30~20:00
행사장소: 공지천 → 소양아트서클
사전신청: QR 접속 및 신청서 접수
지원사항: 야광봉, 생수, 기념품, 경품추첨
참고사항
- 세부 일정 및 루트 개별 안내
- 사전 신청자에 한정하여 경품 추첨 진행
- 자녀(아동·청소년) 동반 참여 가능
문의사항: ☎ 070-4020-4199



행사 참여하기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 신고 / 상담
병영생활 고충 상담 / 군범죄 신고
방위사업 비리 신고, 상담

시민역사학교 '히스토리아'

관련문의: (사)춘천의병마을
☎ 263-8903 / 010-9287-8906

1. 역사강좌

일시장소: 4. 7.(화) 18:30 / 시청1층 대회의실
강 의 명: 극우사조의 확산과 바른 시민의식
강 사: 전우용(역사학자)

2. 역사답사

일시장소: 4.24.(금) 07:30 / 호반체육관
답사지역: 진관사, 서오릉, 백범기념관, 효창원 등
모집인원: 35명
접수기간: 4. 1.(수) 9시 ~ (역사강좌 청강자 우대)
접수방법: 문자 또는 카톡
참 가 비: 30,000원(식비, 보험료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230-01-018313(춘천의병마을)

국립춘천박물관

관련문의: ☎ 260-1532, 1591

1. 2026년 춘박 명품 토크보기

교육일시: 4.29.(수) 14:30~15:00
교육주제: 강원도의 무덤에서 출토된 신라 금동관
큐레이터: 채해정 학예연구실장
교육장소: 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제2실
참여방식: 참가비 무료, 현장 참여
관련문의: ☎ 260-1532, 1591

2. 2026년 박물관 처음 만나기(참가비 무료)

교육기간: 2.24. ~ 12.11. / 화,수,금요일 / 30회
교육시간: 10시, 14시 (각 90분)
교육장소: 박물관 전시실, 숲속 배움터 등
교육대상: 회당 30명 내외 / 최소 참여 인원 15명
* 발굴 체험은 최대 100명 참여 가능
신청방법: 사전 예약 / 일정 내용, 전화 협의
교육내용: 실물 감상을 통한 상설전시 즐기기



체험행사

춘천 부귀리 벚꽃잔치 '오는 봄을 너와 함께'

행사기간: 4.11.(토) ~ 4.19.(일)

행사장소: 북산면 부귀리 340번지

행사내용: 개막공연, 가훈쓰기, 인절미체험, 벚꽃음악회 등

개 막 식: 4.15.(수) 13시

벚꽃음악회: 4.18.(토) 13시

주최주관: 부귀리벚꽃축제위원회 ☎ 010-3378-8896

모집안내

2026 시민레저아카데미 강습형 신청 안내

신청분야: 강습형(개인·주말·유료)

신청종목: 스케이트보드, 송암라이딩(자전거 교육)

운영기간: 4. 4. ~ 5.10.

신청기간: 3.23.(월) 10시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www.clt.or.kr

신청절차: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시민레저아카데미' → '강습형' 신청

신청문의: ☎ 250-4540



신청 바로가기

춘천 의용소방대원 모집

모집분야: 남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전문의용소방대

활동내용

-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 점검
- 자살예방, 산불예방 등 캠페인
- 가시박 제거, 온기나눔 등 봉사활동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문 실습 교육

지원자격: 춘천시 내 등록거주자 또는 사업자

대원혜택

- 대학 장학금 지원, 교육수당 지급
- 심폐소생, 소방 관련 자격 취득 지원

관련문의

- 춘천남성의용소방대 서무반장 ☎ 010-3714-1694
- 춘천응급처치전문의용소방대 총무부장 ☎ 010-7128-3477

모집안내

춘천시평생학습관 찾아가는 방문강좌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3.16. ~ 3.30.

교육대상: 관내 거주자로 7인 이상,

성인 학습자 모임(만 19세 이상)



수강 신청하기

① 동네방네 방문강좌

- 읍·면·동 거주 성인 학습자
- 고령자, 다문화, 비문해자 성인 학습자
- 관내 자영업·소상공인·소기업 종사자 및 직장인 등

② 장애인 방문강좌

- 장애인 복지시설·기관·단체 등 이용 장애인

기간장소: 4.13.(월) ~ 6.30.(화), 관내 학습공간

선정방법: 서면심사 후 학습모임 선정

제출서류: 신청서 및 학습모임 명단

제출방법: 이메일(khy5646@korea.kr) 또는 방문

선정방법: 서면심사 후 학습모임 선정

※ 평생학습 소외계층 학습자 우선 지원

선정결과: 4. 7.(화) 예정 수강료: 무료(재료비, 교재비 제외)

문의전화: ☎ 245-5184

동네방네 방문강좌

AI를 활용한 창작(디자인 및 슷츠 제작)

한글 생활 문해교실 / 시 낭송 / 노래교실 / 농악(풍물가락)

민요와 장구 / 색소폰교실 / 텀드럼교실 / 라인댄스

요가&스트레칭 / 필라테스 / 미술 수채화(재료는 개인 준비)

어반스케치(재료비 25,000원) / 캘리그래피(재료비 41,000원)

원예힐링교실(재료비 회당 3,000~5,000원)

바리스타교실(재료는 개인 준비)

이미지 메이킹&스피치 / 영어교실 / 통기타교실

토탈공예(재료비 60,000원)

천에 그리는 야생화 교실(재료비 39,000원)

기타 희망강좌

장애인 방문강좌

한글 생활 문해교실(재료비 7,000원)

노래교실(민요) / 댄스교실 / 전통놀이(재료비 회당 7,000원)

미술교실(재료는 개인 준비) / 캘리그래피(재료비 41,000원)

양말목공예(재료비 회당 3,000원) / 이미지 메이킹&스피치

원예교실(재료비 회당 3,000~5,000원) / 컵타(재료비 2,000원)

기타 희망강좌

알림마당

시민과 가까운 소식, 생활에 도움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모집안내

신흥늘배움터 학생 상시 모집

모집대상: 만 24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모집기간: 4. 1. ~ (상시 모집) 상담시간: 평일 10시 ~ 14시

교육과정

- ① 성인한글교실: 월, 수 10시 ~ 12시
한글 자음, 모음부터 맞춤법, 글 읽기, 일기쓰기
- ② 기초영어교실: 월, 수 12:30~14:30
알파벳부터 간판 읽기, 단어 읽기, 기초영어
- ③ 컴퓨터 교육: 월, 수 10시 ~ 12시
컴퓨터 / 인터넷 사용법, 워드 프로그램 배우기

관련문의: ☎ 253-7736, 010-6703-6223

미래동행 아카데미

관련문의: ☎ 242-5060



홈페이지 바로가기

1. AI 디지털 활용교육, 수강생 모집

교육일시: 4.15. ~ 6.24. / 매주 수·목 13:30~15:30

교육장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디지털 교육실(중앙로 84-1)

모집대상: 50세 이상 춘천시민 15명

모집기간: 4. 1. ~ (선착순 접수)

강의내용

- ① AI 기초·소통: 챗GPT·제미나이 활용법 등
- ② 생활 밀착형: 건강 정보 검색, 여행 계획 세우기
- ③ 디지털 창작: AI를 활용한 자서전 초안 작성 등

수 강 료: 자부담 3만 원

신청방법: 춘천미래동행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영상정보 관리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일시: 4.28. ~ 6.16. / 매주 화·목 19시~22시

교육장소: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정보화실(외솔길 25)

모집대상: 50세 이상 춘천시민 15명

모집기간: 4. 1. ~ (선착순 접수)

강의내용

- ① 핵심이론: 개인정보 보호법 및 CCTV 설치·운영 법령
- ② 실무기술: AI 기반 지능형 관제 및 VMS 운용 실습
- ③ 자격취득: '영상정보 관리자' 자격증 취득 기출 풀이

수 강 료: 자부담 3만 원

신청방법: 춘천미래동행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나에게 딱 맞는 취업 준비 시~작!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I유형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60만원)
II유형 취업활동비용(최대 35만원)

*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등)
· 직업능력 향상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취업알선(면접컨설팅, 채용행사, 동행 면접 등)

열린 점자 교실 수강생 모집(수강료 무료)

교육기간: 4.13. ~ 4.30. 매주 월·목 19시 (6회)

교육장소: 모두의 살롱 후평(후석로379번길 14)

교육내용: 한글점자 쓰고 익히기, 점역·교정사 자격시험 소개

신청기간: 3.30. ~ 4.10. / 선착순 8명

관련문의: ☎ 262-1920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북한이탈여성 상담 지원



☎ 257-4687

강원 거주 북한이탈여성누구나
#통료상담 #전문가 상담 #집단상담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강원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지원센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 7. 1.)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지원 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 양육비 채무 전부를 이행한 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 04554)
 - ※ 우편접수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 요망

문의

- (전 화) 1644-6621 (평일 9시 ~ 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독자와 함께

봄내 독자 참여 코너

강대후문 주차장 너무 편해요

골목형 상점이 소식을 읽고 새로 생긴 공영주차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강대후문은 주차가 불편해서 자주 못 갔는데, 앞으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네요. 유익하고 알찬 봄내소식지 덕분에 삶의 질이 높아지네요..

독자 김영훈



배구에 진심인 사람들, 감동했어요

30년이 훌쩍 넘게 한국 배구 팬입니다. 강원도 연고지 배구단이 생기를 오랜 세월동안 응원하고 기다려왔는데, 봄내 3월호 기사를 읽고 춘천 배구의 역사를 알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저도 배구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어요. 춘천 배구 화이팅!

독자 이인경

'산나물 너는 나의 봄이다'를 읽고

글을 읽는 내내 겨울 끝자락에서 막 올라오는 작은 새순과 춘천의 산자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기름 산나물 구이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계절을 먹은 듯, 행복한 봄 기운이 가득 올라오네요.

독자 이영은



불은 없었지만, 현장은 움직이고 있었네요

봄내를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춘천에 이 사 온 뒤로는 산불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사실요. 재난을 보지 못했다는 건 재난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씨앗을 미리 막아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요. 산림재난대응단 여러분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독자 원석화



어르신들 AI동화책 만드는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AI동화책 기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친정 엄마가 문학소녀였는데, 책도 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모임이라 길래 추천해 드렸습니다. 요즘 적적해 하셨는데 복지관에 연락해 보려고요. 좋은 정보네요 정말.

독자 최명자

효자동 병아리, 공감 가는 글 너무 좋아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라면박스 속 병아리를 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하룻길에 빼약빼약 울어대던 그 소리가 귓가에 선하네요. 제 병아리들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글 속의 병아리는 잘 큰 것 같아서 좋았어요.

독자 오지현



소식지 구독 신청

봄내소식지가 홈페이지를 통한 구독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메일 서비스와 읍·면·우편 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단체 여부, 원하는 부수를 표기해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bomnae.chuncheon.go.kr

신청기간: 매달 20일까지



422호 '불조심' 삼행시 당첨작

불어오는 소양강 바람에도 따스함이 깃들도록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주변의 불씨를 살펴 주세요 심혈을 기울여 가꾼 이 계절의 빛깔이 스러지지 않게

독자 서기철

422호 독자 삼행시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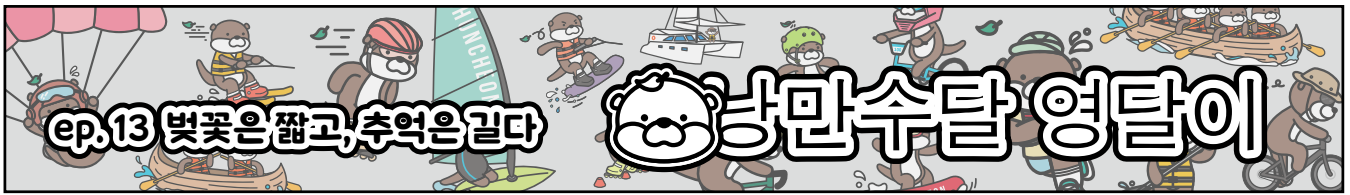
강래희, 권정민, 김도영, 김부미, 김영순, 김효문, 류미경, 박정민, 배흥진, 서기철, 유영희, 윤민우, 윤예리, 이경아, 이대범, 이명연, 이원영, 이주미, 정수정, 최윤정

다음 독자 삼행시 주제는

외교단 입니다.

이달의 춘천시 통계 (2026. 2월 말 기준)

-  인구 290,281명(-187)
-  가구 138,395세대(+211)
-  출생아 126명
-  65세 이상 65,046명(+364)
-  자동차 152,213대(+168)



“4월의 춘천,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독자 참여 안내

원고와 사진을 매달 10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당첨되신 분께 원고료를 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원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홍보담당관 이메일 bomnae1993@gmail.com

봄내소식지 독자 참여코너 안내

1. 삼행시 응모(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 성명, 핸드폰 번호(본인 명의) 반드시 기재
2. 독자와함께, 봄내한컷, 로컬푸드 레시피 응모(원고료 3만원 지급), 우리들 이야기 응모(원고료 5만원 지급)
성명,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도로명주소 반드시 기재

봄내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 이벤트 안내 봄내퀴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천원(정답자 중 100명 추첨)

FW 18 | 마테우스

DF 20 | 권진영



2026 시즌

춘천 시민축구단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홈경기 일정]

4월

12 | 일 | 14:00 vs FC강릉

19 | 일 | 14:00 vs 당진시민축구단

26 | 일 | 14:00 vs FC목포

5월

9 | 토 | 14:00 vs 포천시민축구단

16 | 토 | 14:00 vs 전북현대모터스N

30 | 토 | 17:00 vs 경주한수원FC

6월

7 | 일 | 19:00 vs 대전코레일FC

20 | 토 | 19:00 vs 시흥시민축구단

27 | 토 | 19:00 vs 양평FC



춘천시민축구단
유튜브



춘천시민축구단
인스타



춘천시민축구단
카카오채널

